朝鮮日報
夕刊
三十日(月)
本紙朝夕刊十面
編輯兼發行人 方應謨

에國總動員報에! 急遽理事會召集

國土防衛上不得已動員한다고 에國皇帝聲明發表

伊에風雲急迫

【쥬네브二十九日發聯合】에디오피아政府는 二十九日 聯盟事務局長앞으로 에디오피아皇帝하일레·셀라시에一世는 二十九日 總動員을 發令하엿다는 旨를 通告해왓다

【쥬네브二十九日發聯合】聯盟事務局長은 에디오피아政府의 總動員令通告와 함께 聯盟各國代表에게 秘密通告를 發하엿다

【아디스아베바二十九日發電通】에디오피아皇帝하일레·셀라시에一世陛下는 二十九日 國家總動員을 할것이라는 宣言을 發하시엇다 그리고 總動員은 來十月一日 實施될것으로 보인다

【아디스아베바二十九日發電通】에디오피아皇帝하일레·셀라시에陛下로부터 二十九日 聯盟에 對하야 發한 警告電報는 大略如左한것이다

에디오피아는 伊에紛爭發生以來 終始一貫 그和平的解決을 圖해왓는데 伊太利政府는 過去數個月동안 國境에 軍隊를 派遣하야 對에侵略의脅威를 益益 增大케하고잇다 이事實에 對하야 에디오피아政府는 聯盟理事會의 注意를 喚起하는 同時에 伊太利軍의 侵略行爲防止를 爲하야 理事會가 卽刻 必要한 處置手段을 講究하기를 要請할것이다 何故오하면 萬若 에디오피아政府가 에디오피아國土防衛를 爲하야 必要한 國家總動員을 다시遲延한다면 우리 모든聯盟國으로서 그義務에 背反할 憂慮가 잇슬념이 到來할것은 必定임으로써다

近近 에디오피아政府가 내리려는 總動員令은 可及的 伊太利軍隊와의 衝突을 避하기爲하야 에디오피아側으로서國境線內三十킬로의 地點에까지 後退시키려고하는 政府의命令과 抵觸되는것이 아니다 이期에 際하야 에디오피아政府는 紛爭의 和平的解決을 爲하야 끗까지 聯盟과 協力하려는 從來의 에디오피아政府當局의 衡平한 決意를更新하는者이다

【쥬네브二十九日發聯合】에디오피아國總動員의 報에 接하야 聯盟理事會는 急遽 三十日 開會하고 非常處置를 講究하고 對策을 協議할것으로 보인다 聯盟理事會事務當局은 事態의 重大性을 痛感하고 二十九日 에디오피아皇帝의 親善援受에 對하야 如左히 말하엿다 에디오피아皇帝의 總動員發令은 事態를 文字그대로 一觸卽發의 危機에 直面케하엿다 聯盟理事會는 三十日 急遽開會하고 應急處置를 講究할 必要가 잇다 에디오피아의 動員令으로 드듸어 中立監視員을 現地에 派遣하야 戰鬪行爲開始의 境遇에 侵略行爲의 責任者를 判定할 切實을 示하게되엇다 (寫眞은 에國皇帝)

伊에兩國모다 宛然戰時狀態

【羅馬二十九日發聯合】에디오피아皇帝는 드듸어 國軍總動員을 決意하엿다는 報道에 伊太利全國軍은 極度로 緊張을 呈하야 輿論一致 거의 完全히 戰時狀態에 入하엿다 伊太利政府로서는 步兵十四聯隊와 特科機關銃隊가 出動하야 動員部隊三十萬은 今後의 情勢展開를 기다려 언제든지 戰端을 開始할수잇도록 待機하고잇는 意氣로서 아마 伊太利軍이 먼저 에디오피아駐屯軍으로부터 行動을 起하야 대번에 國境線을 突破하고 아도와로 進擊하야 半世紀에亘한 國民的屈辱을 雪할 作戰이라고 解釋된다 政府當局은 에디오피아皇帝의 國境線三十키로로 撤收의 報道를 一笑에 附하고 右는 總動員을 決行하기爲한煙幕에 不過하다고하고잇다

【아디스아베바二十九日發聯合】에디오피아皇帝 하일레·셀라시에一世는 數日前부터 連日作戰計劃을 進行하고잇는데 伊太利軍이 逐日 國境線一帶에 集結하야 着着 戰備를 進行하는同時에 全國民의 亢奮은 發火點에 達하엿기때문에 開戰論은 全國을 支配하게 되엇다 皇帝하일레·셀라시에一世는 伊太利軍에게 開戰의 口實을 與할것을 念慮하야 理事會의 和解工作에 一縷의 期待를 걸고 激昂하는 國民을 抑壓해 왓는데 아도와의 戰捷에 醉한 國民은 容易히 應하지안을뿐아니라 國境線附帶에 蟠居한 西南首長들은 서로 協同하야 伊太利軍의 防禦에 맛기는것보다는 先手를 制하야 攻擊을 把握한다는 意氣를 示하야 皇帝하일레·셀라시에一世의 制止로써도 興奮을 抑制할수업는 情勢이어서 드듸어 皇帝하일레·셀라시에一世는 總動員令을 決定하얏다는 報道에 아디스아베바市民은 依然 緊張을 呈하야 總動員令의 實施에 備하라고 잇다 消息通의 觀測에 依하면 總動員決行은 十月一日、戰爭開始는 二週間以內라고 보고잇다

三週間內에 戰爭開始

伊公使館附武官談

【아디스아베바二十九日發聯合】에디오피아皇帝가 總動員令을 決意하얏다는 報道에對하야 아디스아베바 駐箚伊太利公使館附武官은 二十九日말하엿다 國境線上의 情勢는 急迫하게되엇다 이에雨期도 끗낫슴으로 今後三週間內에 戰端이 開始될것이다

軍、外兩當局一致하야 對中工作遂行邁進

列國의進出이注目의的

【東京電話聯合】日本의 對中具體的方針에 關해서는 北中事件勃發以來 軍部外務當局間에 完全히 意見이 一致되어 大使館昇格問題에 對하야 生하엿다고 모이면 兩者의 間隙도 消滅되고 全히 不動하는 方針과 緊密한 連絡으로써 國策遂行에 邁進하야 國力進出에 努力하고잇는 一方 列國의 對中進出도 可恐할 進度로써 進捗되어 日本當局의 關心의 的이 되어잇다 卽來昔唯一의 印度外廓地域에 政治的經濟的勢力獲得에 非常한 熱心을 示하고잇는 英國은 特히 中部 中國南部에서 往年의 勢力回復에 苦心하고 잇서 有望한 技術者를 南京政府顧問으로하야 四川省 方面의 鐵道敷設에 特殊地位를 占取하고이어서 經濟委員을 派遣하야 中國의金融經濟專門家와 會見하고 借款問題에 對하야 積極的 援護의 熱意를 披瀝하야 諸般에 努力하고 잇는바 英國側資本團은 日本의 反對意見에도 不拘하고 南京政府와의 사이에 借款問題에 關하야 某種度의 成功을 거두엇다고 한다 卽陳公博 實業部長과 英國商業銀行代表間에 借款交涉을 擔保로 棉業借款의 一千萬元借款設까지 傳한다 또 四川省에서는 石油利權 비르마로부터 四川省重慶成都에 至하는 鐵道敷設權에 對한 資本及 技術的援助、四川省의 鑛山利權外 某利權獲得에 成功하야지금 四川省은 蔣介石氏의 剿共工作成功에依한 地盤強化와 함께 英國金融資本은 牢固한勢力을 扶植하게되어잇다 그런데 英國金融資本勢力의 南方印度、緬甸方面의 進出에 對應하는것과도가티 蘇聯邦의 北方新疆外蒙方面에의 進出은 顯著한바잇서서 이미 事實上 赤化工作에 奏効하야 蘇聯社會共和國으로 蘇聯邦의 傘下에 歸할것도 時日의 問題라고하며 甘肅의 共產黨運動도 活潑을 加하야 지금 不拔의 地步를 占取하야 今後도 赤化運動은 中國中央의 各省에 猖獗을 極하려고 하고잇스므로 中國과 密接한 關係에잇는 日本으로서도 重大問題이라 日本軍務、外務關係當局은 去二十七日正午 四省會議를 開하고 中國의 現狀에 對하야 再檢討를 行하야 日本의 根本方針을 決定하게되엇는데 이根本方針이 正式

十三人委員會緊急會議開催

【쥬네브二十九日發聯合】十三人委員會는 二十七日의 會議로써 一旦 休會하엿던바 에디오피아皇帝의 總動員에 接하야 三十日 緊急委員會를 開催하고 伊에兩國間의 急迫한 情勢를 檢討하야 應急處置를 講究하기로決定하엿다

獨一九一四年까지 壯丁에招集令發表

【伯林二十八日發電通】二十八日 獨逸政府는 一九一四年까지의 壯丁에 對하야 招集令을 發하엿는데 此等壯丁은 十月一日부터 陸軍乃至 空軍에服役하기로되엇다

功勞者表彰

總督府始政 二十五週年紀念表彰者는 十月一日에 發表되는데 表彰者總人員은 五千三百九十二名에達한다는데 그內容은 如左하다

一、高等官同待遇者 六四五人
一、判任官同待遇者 二、四一〇
一、囑托雇員 四九七
一、傭人 九一六
一、民間功勞者 二六二
一、公職者 五一九
一、孝子節婦義僕 四三

殉職者弔魂祭

鐵道局에서는 來月四日午前十一時부터 龍山鐵道公園內弔魂碑前에서 殉職者弔魂祭를 執行하고 本局職員全員其他가 參拜하기로 되엿는데 當日 祭祀할 殉職者數는 今年 新祭者 百三十一名、累計三千二百十二名이다 그리고 當日局友會의 主催下에 奉納餘興으로 運動競技、映畵演藝等이 잇다

制裁發動에對備 伊太利對策完成

非聯盟國으로부터物資輸入 輸入稅撤廢等決定

【羅馬二十八日發聯合】伊太利政府는 東阿에서 戰爭行爲開始와 同時에 國際聯盟이 決議的經濟封鎖의 制裁의 擧에出할 境遇를 考慮하야 着着 이 對策을 考究中인데 二十八日 重要化學藥品、銃器製造用木材에 對하야 輸入稅를 撤廢하게되엇다 伊太利政府는 또 非聯盟國으로부터 物資의 輸入을 仰請할方針을 考究中이다 現在까지에 決定을 본 對策은 如左하다

一、랑그스텐、코발트、카복、蒼鉛等의 重要化學藥品、銃器用木材에 對한 輸入稅撤廢
一、鐵材의 建築用使用禁止
一、價格吊上에 依하야 食料品不足의 結果、穀物價格이 暴騰할 境遇에 備하기爲하야 小麥을 貯藏할것 이것은 現在 이미 二百萬킨탈에 達하엿다
一、非聯盟國으로부터 物資를輸入할것 이미 非聯盟國인 부라질로부터 兩國의 大量輸入契約을 締結하엿다
一、境遇에 依해서는 日本及獨逸二國에 對해서도 物貨輸入을 請하려고 考究中이다

(漫畫는 뭇솔리니氏)

【羅馬二十八日發聯合】伊太利政府는 東阿에서 戰爭行爲開始와 同時에 國際聯盟이 積極的經濟制裁의 擧에出할 境遇를 考慮하야 着着 이 對策을

中堅靑年講習會終了

去二十日부터 二十九日까지 水原農事試驗場에서 開催된 第八回全鮮中堅農村靑年講習會는 二十九日 終了하엿스므로 三十日 講習生一同은 總督府를 訪問하고 宇垣總督으로부터 一場의 訓示를 受하고 解散하엿다

伊太利와함께 匈波兩國聯盟脫退?

伊에開戰은來七日前後

【巴里廿九日發聯合】東阿植民地의 雨期終了와함께 伊、에兩國軍의 衝突은 인제 時間의 問題라고 觀測되게 되엇는데 마랑紙 羅馬特派員이 가장 確實한 情報라고 傳하는바에 依하면 伊太利政府는 理事會에서 勸告案을 採擇하는 十月十七日前後를 期하야 드듸어 戰端을 開始할方針이라고한다 그리고 맛쇼紙의 總動員은 開戰前日에 決行될것이라고 傳한다 또 同特派員의 傳하는바에 依하면 伊太利政府는 理事會가 制裁案을 發動할 境遇에 聯盟을 脫退할 模樣이라는 見解를 表示하고 伊太利政府의 脫退에 이어서 匈牙利政府도 이어 波蘭政府도 援護하야 聯盟을 脫退할것으로 期待된다

復辟問題圍繞코 帝政共和對立激化

【아덴스二十九日發電通】二十九日 카로치니아에서 自由黨領袖 소프리스氏가 復辟反對의 演說을 行하려고하자 帝政派는 이것을 妨害하야 共和派間에 大亂鬪가 起하야 死者一名、負傷者二十五名을 내엇는데 急報에 依하야 騎馬隊가 出動하야 秩序를 回復하엿다 復辟問題를中心으로 兩派의 對立은 드듸어 激化해젓다

伊軍東阿出征

【타란트(伊太利)廿九日發電通】將校二百名、兵四千五百名은 二十九日 汽船라스주르니아號로 驅逐艦隊에 護衛되어 當地出發 東阿遠征의 途에 올랏다

汕頭事件惡化! 驅逐艦七隻急行

注目되는事件의進展

【香港二十九日發聯合】汕頭中國官憲의 不法事件勃發에 日本人은 極度의 不安에 싸이여잇는데 須賀少將은 旗艦香取以下 十六、二十八驅逐隊에 對하야 卽時汕頭에出動을 命하얏다 驅逐隊七隻은 卽時出動하야 日本人保護의 任務에 就하얏다 一方 下村少將은 廣東附近에서 中國官憲의 橫暴를 監視하고잇는데 形勢의 重大化를 覺取한 廣西의 第四集團軍總司令李宗仁氏가 自發的으로 調停을 要請해왓는데 지금으로서는 解決될氣色이 보이지안는다

【香港二十九日發聯合】廣東駐箚日本總領事河相達夫氏는 二十七日 第一集團軍總司令 陳濟棠氏를 訪問하고 日本人僑商壓迫問題에 關하야 嚴重抗議를 發하엿다 그러나 陳濟棠氏는 何等 誠意있는 回答을 하지안헛다 河相總領事는 二十七日의 河相陳濟棠氏 會見에 對하야 日本의 抗議 內容은 如左하다

一、最近 汕頭地方公署가 日本人의 營業、日貨抑留는 條約上의 權利에 基한것이 아니다 如斯한 不法權力行使 及 暴力行爲는 卽時 停止하라

一、東區綏靖公署는 臺灣人이 省境을 通過하야 輸入하는 棉布等에 對하야 賦課하는 稅金 及 未納入者의 資貨를 沒收한 事實이 잇다 如斯한 不法命令은 卽時 取消하라

二、中國人이라고 納入을 拒否하고잇는데 對하야 最近 日本人에 對해서 稅金 徵收計畫을 세워 日本人、特히 臺灣同胞에게 對하야 生命財產에 對한 危害를 加하야

에디오피아의 防戰計畫概要

【아디스·아베바二十九日發電通】伊에開戰必至의 情勢에 備하야 에디오피아側에서는 防戰準備를 完了하고 未曾有의 國難에 對한 國民의 意氣는 激昂한바잇는데 當地에서 聽聞한바에 依하면 에디오피아政府에서는 全國民을 擧하야 이것을民軍으로 各地의 戰鬪에 從하야 特定한 一個所에 이것을 集結하지안코 天險을利用하는 要害의地에 配備하야서 伊太利軍의 侵入을 邀擊하려고하고잇다 右防戰計畫의 概要는 大體如左하다

一、三平方哩마다 六百名을單位로한 軍隊를配備하야서 伊太利軍擊退의 任에 當케할것
二、各地酋長이 直接 그配下를 指揮하고 熟知한 天險을 힘입어 防備를 굿게할것
三、軍隊를 一個所에 集結치안코 이것을 널리 各地에 分散케하야 伊太利軍의 飛行機에 依한 爆擊과 毒瓦斯의 標的이 되는것을 될수잇는대로 避할것
四、急峻한 山岳에 依하야 伊太利軍에 攻擊을 加하고 卽時 森林地帶에 隱退하야 伊太利軍의 追擊을 免할것

에디오피아側의 防戰計畫은 概要 以上과가티 阿弗利加黑人帝國의 特色을 示하고잇다 그리고 에디오피아側으로서는 侵入한 伊太利軍에게 頑強한 抵抗을 試하는것보다 차라리 모든手段을 다하야 伊太利軍의 進擊을 防止하야 交通路를 破壞하고 自然의 要塞이되는 險峻한 地勢를 巧妙히 利用하야 出沒해서 侵入軍을 疲勞케하야서 그士氣를 喪失케하려는 戰略에서 오는것이라고 생각된다 西北部及이에 가까운 곤달地方은 緩漫한 傾斜가 되어잇서서 伊太利軍이 먼저 이方面으로부터 侵入해올 憂慮가 만키때문에 에디오피아側에서는 이곳에 多數의 軍隊를 配置하는同時에 要塞를 築하야 各地에 陷穽을 設하야 伊太利軍의 탱크를 捕獲하려는 모양이라 이와가티 에디오피아側은 自進하야 進擊지안코 主로伊太利軍의 侵入을 包圍하야 드되어 開戰이될 境遇에 攻防의 姿勢를 明白히하야 伊太利軍側에 侵略의 汚名을 씌우려는 意圖에 나오것은 對聯盟工作의 一部라고 본다 다만右와 如히 計畫하는 에디오피아軍의 唯一의 弱點은 軍隊의 大部分이 半未開의 野人이것마큼 政府의 命令이 徹底하지안는것이다

本社電話番號變更

來十月一日부터 本局區內가 自働式電話로 變更됨에따라 本社電話도 本局으로 編入되는 同時에 左記와如히 番號가變更되오니 以此照亮하심을 望하나이다。

代表番號 本局 一一九一番
長距離 (長)本局 一一九七番
代表番號 (長)本局 一一九八番
夜間專用 本局 一五九七番
京城販賣所

朝鮮日報社

人事·集會

▲朴榮喆氏(商銀頭取)三十日午前全州邸第에서遭外艱

八面鋒

伊太利는 聯盟을 脫退하지아니하고、또 伊、에紛爭을 歐洲까지 擴大식히지안켓다고 決定。◇

그러나、한편으로는 國家總動員을 斷行하야 『아도아』의復仇만은 할決心。◇

이눈치를 確實히 채인 『에디오피아』에서는 앞질러서 總動員斷行을 聯盟에 通告。◇

十月一日을 期하야 銃소리가 나느냐 안나느냐는 아즉알수업스나 危機만은 絕頂인듯。◇

汕頭地方 中國官憲의 〃不法行動〃으로 驅逐艦七隻出動。◇

外務當局이 局地的解決을 希望하고잇스니 以上 미덤은 업것지。

001047

㊟ 朝報案內

유모 젖이 만코 몸 구하오니 병업는니로서 뜻이이스면 市內茶屋町九〇番地로오시오

貸家 左記商店二階를希望하시는분은 問議하시압 京城府鍾路一ノ五二 趙孝淳商店

大適進! 大奉仕! 콜럼비아大衆盤 리-갈레코-드 一枚八十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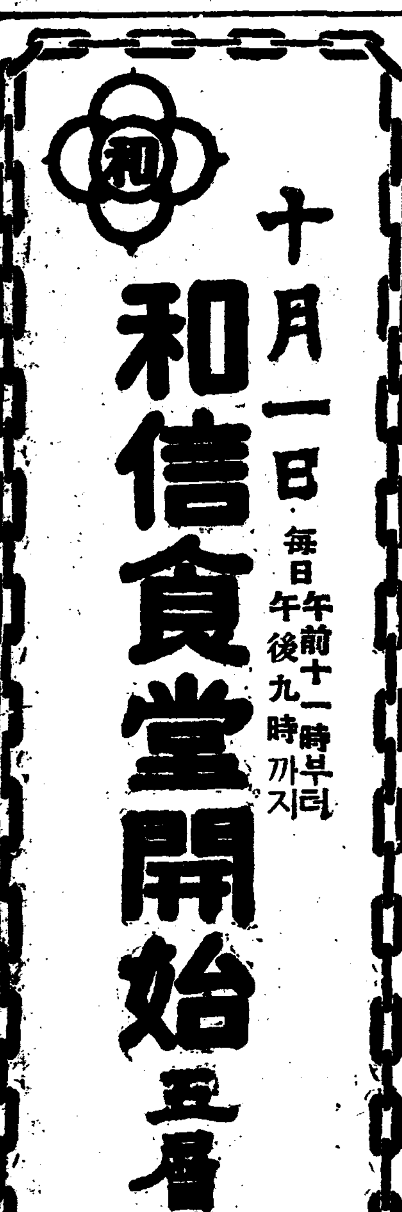
京城中林洞一五五 大陸고무工業株式會社 電話本局 三三八番 振替口座京城一二八一番 專務取締役 李圭元
登錄商標 登錄商標
京城 대륙
고무靴界元祖 大陸고무
總販賣部 京城鍾路(鐵拔判所前)(電話光化門長 七六五)(振替口座京城七三三番)
總販賣部支店 京城南大門通四丁目(南大門市場越便)(電話本局 七五四番)(振替口座京城三七七五番)

日本オーケー蓄音器商會京城支店
新番號 長本局(2)四七三〇番
舊番號 光化門 一三二四番

合資會社 亞細亞自動車部 金浦自動車部
新番號 本局(2)〇七一一 (2)〇七一二
舊番號 光化門 一二七 同 一五一五

興一社
新番號 長本(2)四六一〇番
舊番號 光化門 一八七五番

新番號 本局(長) 二九二四番 本局 四五七〇番
舊番號 光化門(長)五〇七番 光化門 一七一〇番
諸織物貿易商 株式會社 廣昌商會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



九月卄八日낫부터三日間大公開 秋節씨-즌本格的大名畵堂堂히上映 三回興行 正午、三時半、七時半 新興키네마社高田프로덕슌合同超特大作品 現代劇 街 (靑春爭鬪篇) 全十卷 靑山三郞監督 高田稔主演 佐久間妙子、渡邊篤助演 어버이가자식을사랑하는것은誰人을勿論하고一般일것이다! 그러나孝誠스러운자식은더욱사랑할것이오! 不良한子息은愛情이멀어저가는것이 우리世人에흔히잇는것이다! 이-映畵一篇이 우리의어버이들에얼마나參考될만한名篇이될른지 파라마운트社超特作 家庭悲劇 부론드·뷔나스 (ブロンドヴィナス) 全十卷 主演名優 마레네·데이트리히孃大熱演 하-바드·마샬、게리·구란드助演 鍾路四丁目 電光七四三番 第一劇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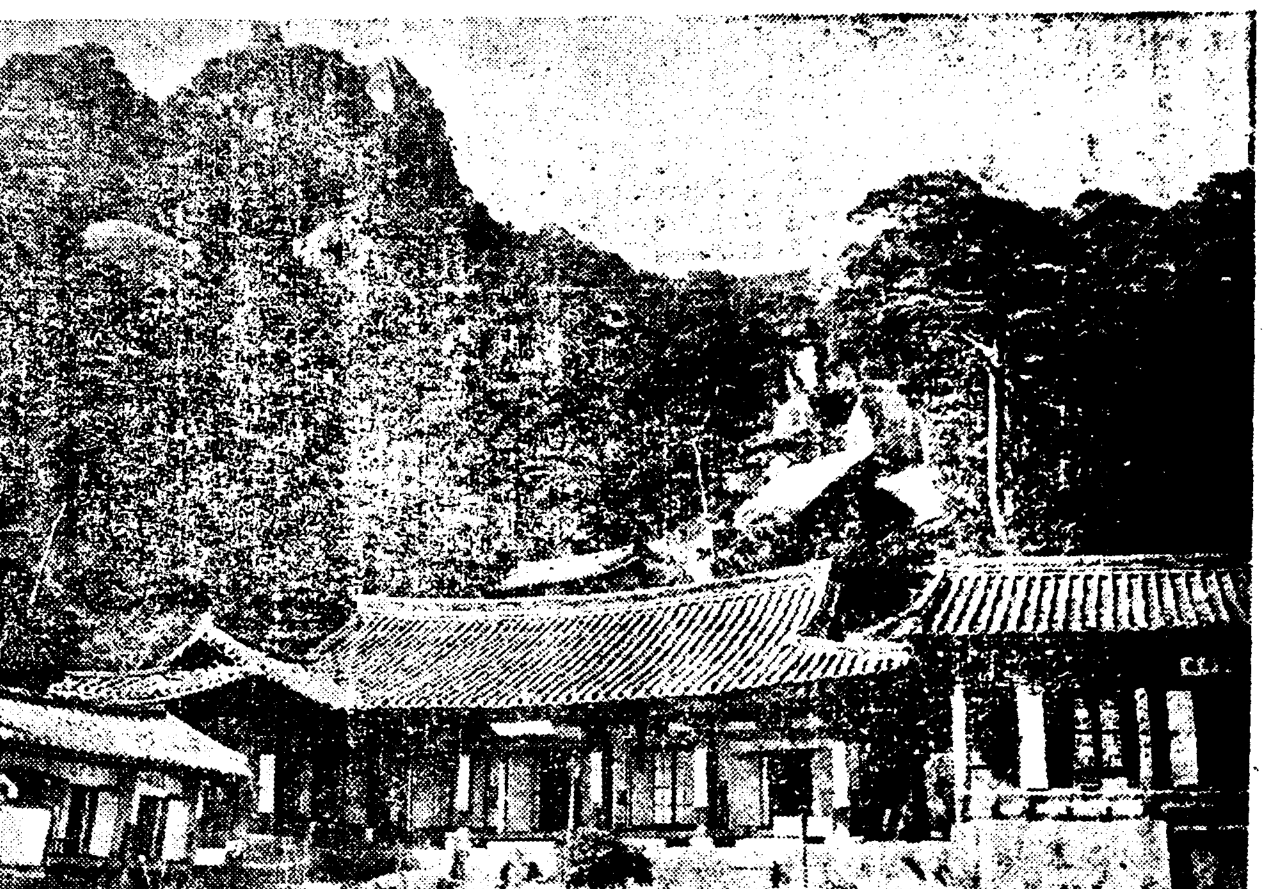
九月廿八日封切 每日三回 午前十一時 午後二時 七時 特別大興行 ◆世界人氣를獨占한 우리들의사리、템플少女主演 젬스판助演 빗나는눈동자 폭스社超特作日本版 샤리、템플은映畵의王座篇、只今에샤리템플은여러분께손짓합니다 어엿부고、귀엽고、앙증하고、영니하고똑똑하고、상냥하고도─ ◆R、K、O、라듸오超特作日本版 솨리부렌、찰스스타렛 윌리얌、파널主演 流線型超特急 世界初有의最大스피-드戰慄冒險篇、映畵前後以來驚異的傑作 國產映畵 一篇 全鮮第一映畵殿堂 電光 九九七 團成社

九月三十日밤부터大公開! 大衆料金階上十五錢階下十錢均一 土曜日、祭祝日、晝夜二回公開!! 낫…一時 밤…七時半 始映 ◇콜럼비아社特作全發聲日本版 復讐大活劇 恩讐 全九卷 監督…알바드로겔氏 主演…잭크홀트氏 助演…조지·에부르랑 콜럼비아社超大作日本版 情에싸힌鐵腕 熱血의男이恩讐의城을越하야大戰震中에單身仇의救援 流轉哀話 가니발 全八卷 監督…월터랑氏 主演…리도레시 데기주란드 大都映畵社超特作品 大活劇 旋風의荒鷲 全六卷 監督…大江秀夫氏 主演…ハヤブサヒデト氏 琴路美津子孃 麻浦桃花洞 電話 三三二 桃花劇場

羊腸石逕다한곳 觀音峰下萬瀑洞

丹楓으로端粧한畵幀한溪谷美

望月寺前哨踏査 (一)



본사주최 제이회전경성 상용여자 단풍노리의 노리터가되는 망월사(望月寺)는어떠한곳인가? 드러안진터전조차 거룩하고 깨끗한도봉산(道峰山)상상봉인 관음봉(觀音峰)바로아래 전나무(檜)숲 울창한곳에 가려잇는 경성근교의 절경중에하나이다 망월사임시정거장에서 긔차를네려 북으로 관음의높은봉들을 처다보며 까가집린바위틈(峽谷)의 물소리를들으며 산기슭바위돌길(石逕)을 이리고불저리삭여 올라가노라면 험한길이 다 한곳에 잔도(棧道)가잇고 잔도를건느면 바위길펼친곳에 오른편으로 자그마한폭포(瀑布)가 보이고 맑은담(潭)무리를 녹여부는드시 고인위에 솔소리(松籟)와 바람울림이 석겨돗기는곳이잇다

언뜻보면 내금강(內金剛)의 만폭동(萬瀑洞)과 방불하고 여긔와서는 산용과지세가 아울려내금강의 그것과 조금도다름이업다 전설에금강산농이 이곳을가다가 배랑을베고 낫잠을 자고나서 내금강이조왓을듯하고 보덕굴(普德窟)을 차젓다는것도 노상말쟁이의 지어내인 말뿐이 아닌냥하야다

관음봉 처다보이는밋흐로 상록수(常綠樹)의 군청색(群青色) 숲사이로는 군데군데 붉게물들은 신나무떨기가 청허경(淸虛境)의 가운은 여긔에물들엇노란드시 네려다보는것이다

간수(澗水)를끼고 랑엽사인 잇기길(苔逕)을 수염수염올라가노라면 떡갈님이 숲울이르고싸리꽃(萩花)이 욱어욱어 대나제도 외려치치한듯한속에 바람이솔솔불면 오음(五音)에도 비할데업는 알수업는 소상(蕭爽)한 소리가들린다 이아마구양자(歐陽子)의 이른바 가을소리(秋聲)인듯하다

창궁(蒼穹)이야단드시 세차게 뽑아올린 아람드리 전나무가 두서너주섯는곳에 산성(山城)이 길욱막아 속재의 마음을 의아케하는곳에풍경(風磬)소리와 목어(木魚)소리 경외입에 서거나는데 눈을들어살펴보면 천년고찰망월사가 그위에 갑주어잇다 (사진은 망월사전경)

高農出身中心事件 京城으로擴大?

刑事三名이京城方面으로出動

數次檄文事件震源도判明?

【新義州支局電話】 긔보=지난이십륙일 신의주(新義州)경찰서에서 체포한신의주읍에사는 수원고농(水原高農)출신의 리정환(李正煥)(二三)에 관한 적색 비밀결사사건은 그검거범위가 전조선적으로뻐칠 기세를 보히고잇더니 과연 이십구일밤열한시경에 신의주경찰서 후등(後藤)고등계주임이 직접 민완의 형사두명을 동반하고 경성(京城)방면으로 떠나갓는데 이로인하야 검거의 불똥은 점점 커저 나갈모양이며 이제나타난 사건내용은 전긔리정환이등 수원고농생들이 중심이되여 독서회(讀書會)를 조직하야가지고 주로 농민층을 적화하여갓스며 작년오월일일 의주(義州)시내에 산포된 반전(反戰)격문사건과 작년팔월일일반 전(反戰)격문사건 왕자제지회사(王子製紙)의 동맹파업사건이 모도다 동비밀결사의 행동으로 판명된 모양으로 검거는 점점확대될모양이다

門外不出秘寶 古美術品公開

一日부터昌德宮博物館에

리왕직(李王職)당국에서 덕수궁(德壽宮)을 개방하야 미술품을 진렬한이래로 그실제에 미치는 바 영향이 만흘뿐더러 최초의 계획은 조선고대의 미술품을 진렬코자 한것이엇는데 장소, 기타의관계로 처음뜻을 실현치못하야 이번시월부터는 리왕직의 비장미술품을 정리진렬하리라함은 이미본보에서 솔선하야 상세히 보도한바어니와 이번에칠팔년간 정리해오든 미술품의정리가 끗낫스므로 예정대로 명시월일일부터 창경원안에 잇는 박물관에 진렬 공개키로 되얏다 여긔에 진렬되는것은 삼국시대(三國時代)를 비롯하야신라(新羅)고려(高麗)대의 불상(佛像)과 조선도토(陶土)의 각종류들로 불상사십점과 조선시대의고화로 고려공민왕(恭愍王)의 작품이라는 불상회를 비롯하야 조선초긔의대가 리상좌(李上佐)의송단보월도(松壇步月圖)와부안견(傳安堅)의적벽도(赤壁圖)와인재(仁齋)어몽룡(魚夢龍)탄은(灘隱)현재(玄齋)겸재(謙齋)단원(檀園)등대가의 대표작과 좋은 미술품 약오백사십여점과 공예품일백사십점을 진렬하얏는데 일일부터 륙일까지에는 신라、고려시대의 출토품과 금제사리탑(舍利塔)과 기타귀중품을 만히 진렬한다고한다

德壽宮美展替品

덕수궁 미술관에서는 제삼회로 진렬품전부를 밧구어 시월일일부터 일반에공개 할터인바 일본화삼사점 서양화 삼십구점조각 이십이점 공예 삼십륙점으로전부가 근대적걸작품이라고한다

運動競技

東京에遠征할 庭球代表

男女廿四組選拔

來十月二十九日부터 十一月二日까지의 五日間 東京에서열리는 第八回明治神宮競技庭球戰에 出場할 朝鮮代表는 男子中等部、大學專門部、一般女子部、一般男府縣對抗等各部를通하야 全部二十四組로 決定되엇는데 一行의出發期는 來二十四日頃이라한다

◇男子中等校部
徽文(閔丙㻇·李景輝) 徽文(崔炳宙·金亨泰) 平農(金世羽·張燮議) 正義(金潤書·金沃萬) 中東(安秀許·李基用)

◇一般女子部
開城好壽(李昌圭·李武象) 大山高女(河本·水野) 第一高女(牧野·江川) 釜山女高(吳時伊·林基顯) 第二高女(神·古賀保)

◇大學專門部
普專(金容沫·申墩激) 普專(李并鎔·洪性熙) 普專(張聖均·趙東勳) 法專(李正來·[illegible]誠鎔) 醫專(高學洙·[illegible]聖用) 醫專(越·部·孫沐)

◇一般府縣對抗部
洪承武(殖銀) 朴龍善(殖銀) 洪承杰(府廳) 福留仁(延專) 熊野御堂(總府) 淺野(專賣) 嚴秉律(總府) 中川(朝銀) 黃基成(專賣) 鄭士連(鐵道) 權永生(殖銀) 渡邊(鐵道) 島川(釜山) 李鍾鎭(殖銀) 李應麟(總府)

全日本陸上 朝鮮豫選

孫君마라손一着

朝鮮陸上競技協會主催의 全日本陸上競技選手權大會兼 明治神宮朝鮮豫選會는 二十九日午後零時半부터 京城運動場에서 參加한 四十餘名 選手의 入場式이있은後 競技의 幕이 열린바 이날 出場選手中에는 江原道、黃海道、慶尙南道、開城等地의地方選手가 多數參加하야 또한異彩를 띄윗스며 當日의 各種目決勝戰績은 다음과 갓거니와 興味의 焦點인마라손에잇서서는 斯界의寵兒孫基禎(養正)君이 出場하야 往路코-스를 一時間十五分의 新記錄으로 走破하엿스나 歸路에드러서 決勝點三千米를남기고 猝然히 腹痛을이르켜 苦痛을무릅스고 決勝點에드러오니 所期하엿든 記錄短縮은 水泡에도라가고말엇다

【投槍決勝】 1劉約翰(朝鐵)三八米八三 2秋野(遞信)三六米九八 3洪永寅(徽文)三六米三四 4白承旭(養正)三四米七〇

【投鐵槌決勝】 1安樂禎(商專)三三米九三 2李俊甲(總府)三一米〇五

【中距離決勝】 1金煥民(外俱)五八秒三

【棒高跳決勝】 1吉田(朝鐵)三米六五

【千五百米決勝】 1李正根(朝鐵)四分二〇秒 2李敏弘(二高)四分二一秒二 3吳奇榮(江原江) 4閔成基(開城)

【三段跳決勝】 1黃大峰(京師)一三米一七 2金濟燮(二高)一一米九〇

【四百米決勝】 1金鍾元(商專)五一秒三 2安永穀(外俱)五三秒 3韓新杜(釜山)

【投槍決勝】 1岩田(朝銀)四六米五一 2中野(朝鐵)四四米四六

【마라손】 1孫基禎(養正)二時間四一分二秒 2安三鎭(京城)二時間四四分四〇秒四 3李泰鎬(二高)二時間五八分四八秒 4張成基(開城)

【萬米決勝】 1柳長春(遞信)三四分一五秒二 2梁任得(慶南)三四分二七秒六

同德女高主催 初等陸上

十月廿日에開催

同德女子高普主催의 第二回初等校女子陸上競技大會는 來十月二十日 午前十時부터 昌信洞同校校庭에서 擧行할터인바 同大會의 諸般規定은 다음과갓다

◇競技種目= 五十米 百米 四百米繼走 ◇出場規定=一種目에 各校四名以內로하되 三名을 出場케함(但 繼走에는 各校五名을 申하되 四名만을 出場케함) 一人의 出場種目은 制限이無함 ◇申請期日=十月十二日까지 ◇申請處所=同德女子高普體育校運動部로

實業庭球리그

殖銀이優勢

京城實業庭球리ー그戰第十三日은 二十九日午前十時부터 京城運動場코ー트에서 日沒또는 降雨로 因하야 未畢한게임을 全部完了하엿는데 이날의戰績은 다음과 가트며 압호로 十月二日에行할 遞信對商銀戰과 專賣對殖銀戰으로 終幕될터인바 二十九日까지의戰率로는 殖銀이優勢를보이고 잇스며 府廳이次位를占하고잇다

【總府】勝 (金雲成·車應烈) 4…1 (加藤·黃河秀) 【鐵道】
(熊野御堂·盧昌斗) 4…0 (張甲麟·[illegible])

(和栗·金鍾朝) 0…4 (鄭士連·渡邊)
(嚴秉律·李應麟) 4…0 (朴源·古屋)
(金春榮·金炳東) 棄權 (奧田·金與燮)
(第二라운드) (金雲成·車應烈) 2…4 (鄭士連·渡邊)

庭球리그戰率表 【二十九日現在】

	殖銀	府廳	總府	鐵道	專賣	商銀	遞信	朝銀	(勝)	%
殖銀	×	○	○	○	?	○	○	○	6	1.000
府廳	●	×	○	○	○	○	○	○	6	0.857
總府	●	●	×	○	●	○	○	○	4	0.571
鐵道	●	●	●	×	○	○	○	○	4	0.571
專賣	?	●	○	●	×	○	○	○	4	0.667
商銀	●	●	●	●	●	×	?	○	1	0.167
遞信	●	●	●	●	●	?	×	○	1	0.167
朝銀	●	●	●	●	●	●	●	×	0	0.000
(敗)	0	1	3	3	5	2	5	7		

(第三라운드) (熊野御堂·盧昌斗) 4…2 (鄭士連·渡邊)
【殖銀】勝 【府廳】
(第一라운드) (崔永生·李鍾鎭) 2…4 (洪承杰·李鳳基)
(第二라운드) (藤原·神田) 4…3 (洪承杰·李鳳基)

淸秋栗林속 盡日의歡樂

盛況! 家庭婦人들노리

본사학예부 주최인 가정부인들노리대회는 년중행사의 하나인만큼 인제는 우리 가정부인에게잇서서 업지못할 명절가티되엿다.

재작 이십구일 하늘이 씻슨드시맑은 천혜(天惠)의일요일을 점처서 과실의왕국인 안양(安養)으로향한 회원 삼백 십륙명은본사원들의 인솔하에 일로무사히 목적지에 도달하여 대회장까지 이르는 십분동안에 본사긔를 선두로 행으를지어 행진하니 물결가튼 치마ㅅ자락에 흔들리는 가을바람은 거룩거룩 이 향긔를 풍기는것이엿다 회장에는 오색이 찬란한 본사긔로 에워싼 장막속에서 미리부터 준비해두엇든 맥차로 회원들의 점심을 자시게하는동안에 본사측에서는 이회를 완전히가정부인들만의 자미잇는 들노리를 만들기위해서 회원들중에서 대회위원을 선정하여가지고 당일의 제반회무를 진행하는것은 그위원들에게 일임하고 본사측에서는 시중만들기로하여 우선 전형위원 메분마뽑아서 당일의 대회위원을 선정하니 회원중에서 선출된 위원은 유현숙(劉賢淑) 전영숙(全永淑)우봉운(禹鳳雲) 한복실(韓福實)황오순(黃五順)강정인(姜貞仁) 김혜석(金惠石)김봉운(金鳳雲)유호길(陸好吉)유승례(劉承禮)십씨인지라 이열명의 위원으로서 회원들전부를 다섯부에논하서 두분식이 각각 그맛흔부락을 통제하기로하고가진 자미나는프로ー가 시작되니 우선 회원경주로부터 시작하야 본사의 특제상품인 시계에대한 경기가시작되엿는데 이경기야말로 당일에 가장 흥미의초점이되는것으로서 경기내용도아주 긔발한것을 끌르되 멘두기세마리를 먼저 잡어오는분에게 시계를 드리기로하엿다 이 뜻하지 아니한 메두기의 수란기(受難期)에 죄업시 잡혀온 귀뚜람이、여치、땅개비등속도 만헛스나 그중에도 틈틈히어서 멘두기세마리를 잡어오신분은 종로사정목 삼십이번지 리정희(李貞姬)씨합분이엿다。이로부터 대회의 흥취는 바로 절정에이르러 여러가지 자미나는노리는 끗칠줄모르고 대회장일대는 왼통우숨터가되엿다。다음으로 복주머니찻기를 시작하엿는데 이복주머니는 본사의 가진성의로 비저너흔 그속에는 금단초 은가락지 오복이 갓득찻슬뿐아니라 가정부인들께는 가장 적절한상품만 끌나너헛는데 빨간주머니와 파란주머니 두개중에서 빨간주머니를 차즈신 분은 어성정(御成町) 딸집이번지 조업전(趙業典)씨이고 파란주머니를 차즈신분은 계동백삼십번지 최오득(崔五得)씨엿다。끗흐로 백화점상(百貨店賞)과 밤은 전회원에게 전부 한사람식 평균하게 논하드리고나서 특히 당일의 위원들에게만 주첨을식혀서 특등상 시계한개와 남어지 일、이、삼、사등까지를 배정해드리기로하니 이 입상자씨명은 특등 김봉운(金鳳雲)씨엿다 도라올 정각이되니 모다 이러서기를 실허하는모양이엿스나 차시시간 관계로 오후다섯시에 안양역을떠나는데 모다 바구니와 보스다리속에 유쾌한가을이 하나씩 갓득드러섯다。

天氣豫報

晴一時曇

昨日氣溫 最高 二五度 最低 一〇度五
今日正午 二二度六

國勢調査

今日夜子正에實施

제사회국세조사는 마츰내 오늘저녁십경 즉 시월일일오전령시를기하야 전국일제히 시행하야 전국일천팔백만의 세대(世帶)에는 이미 빠짐업시 신고서가배포되야 일본내지는물론이고 대만(臺灣) 화태(樺太) 조선(朝鮮) 남양(南洋) 관동주(關東州)와 기타외국에가잇는 일본사람의조사도합하야 내각통계국이중심이되야 긴장의최고조、일일오전령시를긔하야 일본인은한명도빠짐업시 조사가될터이다 지난소화오년의 제삼회국세조사에의한 일본인의인구는 일본내지대만、조선을 합하야 구천삼십구만육천사십삼명으로 제이회국세조사때보다 구십삼만구천일백십사인의 증가를 보엿는데 이로써 미루어본다면 대체로이번에조사한경과는 대개구천구백만정도로 추정되야 일억에나 가까우리라고 추측된다

靈泉行電車 一日부터運轉

서부발전으로인한 교통망의축으로 얼마전부터 부설중이든서대문、령천간(西大門、靈泉間)의복선전차선로는 요즈음준공되야 명일일부터 전차를운전키로되엇다

市內一齊檢索

삼십일 새벽을 긔하야 경긔도관내일제히 총검색을 행하엿는데 시내 동대문서(東大門署)에서는 오전네시부터 여섯시반사이에 청야(淸野)고등계주임이하서원일백삼십명이총출동하야 시내 봉익동(鳳翼洞)삼십륙번지의칠호 문춘학(文春學)(二三)등이십이명의 청년을 검속하엿스며 시내 종로서(鍾路署)에서도 일제검색을 단행하야 수상한 청년십륙명을검속하엿다

解雇報復코저 萬餘圓詐欺

土木出張所員所行

해고당한 일개인부의 대담한 복수 사긔범행——영흥군진평면 진흥리(永興郡鎭坪面鎭興里)에잇는 원산토목출장소(元山土木出張所)진흥공장(鎭興工場)에 인부로 잇든 중야용일(中野龍一)(二[illegible])은 지난 류월십일에 그공장에서 해고당한이래 각처로 전전표랑하다가 해고당한것을 앙심하고 불락하든곳에 지난팔월중순경 원산(元山)에서 전긔진흥공장의 흥유탈고동지에조선마이트회사로부터 삼십원을편취하고 다시구월이십오일경성에 경성애사스디유회사대리점인 함흥평안고무회사(平安護謨會社)에가서진흥공장과 고원공장(高原工場)의명의로 「게솔린」오천오백관과 「모빌」기름 이천오백관의 다수한물품을 일만이천원어치를 사긔주문하여 그것을팔어가지고 도주한 사실이판명되여 함흥경찰서에서는 이사실을탐지하고 방금범인을 엄탐중인데 경성에잠입한 형적이잇다하여 부내각경찰은 맹렬한활동을개시햇다한다

土木談合公判에 兩大學總長出動

荒井等十七名大談合事件辯護

今日高等法院에서

경성복심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고등법원에 상고하엿든 경성토목담합사건의 관계자황정초태랑(荒井初太郎)등 열일곱명에관한 사기(詐欺)피고사건은 삼십일오전아홉시반에 고등법원법정에서희두(喜頭)재판장옥명(玉名)검사의담임으로상고취지설명의공판이열렷다변호인으로동경으로부터 일본대학(日本大學)총장으로 변호사인 법학박사 산강만지조(山岡萬之助)씨가 제일착으로 변론을 개시하야 오전열한시 사십오분까지 전후 두시간 동안이나 서론(緖論)적변론을 진술하고 휴게하엿다 이 공판은 금후 속행하야 십일십삼일 까지에 끗내게 될터이라 이외에 목야량삼(牧野良三)명치대학(明治大學)총장법학박사 제택총명(鵜澤總明)씨등 일본재야법조계의 쟁쟁한 변호사 십여명이 순차로 변론을 할터이라한다 이상고취지설명의 공판이 끗난다음에 상고기각의판결이 나릴는지 혹은 사실심리의결정이 되여 고등법원 에서사실을 심리하게 될는지 좌우간 귀정나게 될터이다 종래고등법원에서는 토목담합사건은 유죄로 판결한판례가잇스므로 이번이사건은 장차어떠케 귀결될는지자못주목되는다 이날방청석에는토목업관계자와변호사등으로대만원이엿다

第一回新譜
(二五〇一) 流行歌 하이킹의노래
(二五〇二) 流行歌 가을의鐵路
(二五〇三) 짜스송 몬테카로의잣난이
(二五〇四) 流行歌 춤추는아가씨
(二五〇五) 漫謠 암으렴그러치
(二五〇六) 民謠 新調梁山道
LUCKY 럭키-레코-드

永登浦朝鮮染色整理工場職工募集
男工 百名 女工 五十名
右十五歲以上二十歲까지 普通學校를卒業한者로서 品行方正한者希望者는寫眞、戶籍謄本、履歷書를左記에郵送하고 十月二日부터 六日까지 每日午後三時로 七時사이에 本人來談할事 但女工은永登浦近處在住者일것
京城府武橋町四十番地 募集事務所 李起柱

京城 中等豫備專修學院 生徒募集
◆新學期開始十月十日學則要二錢切手 ◆中等科第二部 ◆中學第一部(各中等學校入學)
京城府黃金町六丁目三三番地(電本二一六〇)

◇校舍大擴張◇ 實踐簿記專修學院 第四五回生徒募集
官廳銀行商店就職紹介◇晝夜新學期開始十月十日◇學則要二錢切手
京城府黃金町六丁目三三番地(電本二一六〇番)

湯藥服用에大革命 驚異的新發明品 蒸氣回收藥湯罐
新案特許登錄願 第27850號
一、蒸氣發散防止로五割의藥桐을回收
二、火力强弱과時間長短不拘水量不減
三、始初부터服用水量을使用케되야半減
四、水量計가잇스며 使用에便利簡單함
五、耐久耐火에유리로製織每個檢査全
定價一圓送料四十錢也
市內注文即時配達 地方注文三個以上先金送料無料
全國藥局에委托販賣 京城光化門通一〇四番
各郡特約店募集 發賣元 國星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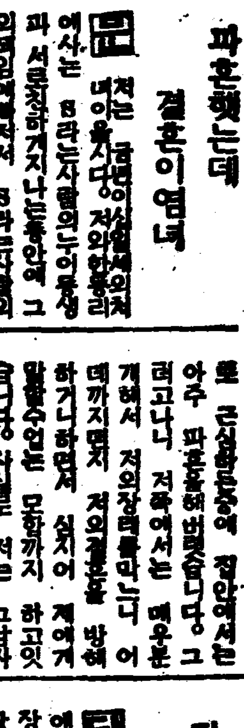
皮膚病花柳病專門 醫學博士 吳元錫
安國洞네거리·電車停留場前(電光二一三二番)
入院隨意 診察 自午前九時 至午後八時

神經痛 류마치스 患者여러분께
東洋에唯一인 注射와同効한 內服藥
神經痛류마치스로 手足의關節과 脊柱와顏面과 頭部와 筋肉等이甚히 압푸고 붓고저리고 땡겨서 오래동안 辛苦하시는 여러분께 참으로 同情하나이다 世上에는 여기에對한藥이만히宣傳하지마는 滿足을 줄만한根治藥은 하나도업다고해도 過言이아닐줄밋습니다 이와갓흔大部分의 宣傳藥은 全部가 西洋藥本位로되여저서衣食住가다른東洋사람의體質에는 여러가지로適當치못할줄밋사오며 東洋에서단지하나인 神經痛良藥「野久之」를말하면 古代로부터傳해오는 獨特한處方이므로 近世에發達된西洋藥이따르지못할 理想的奇妙한作用을하야 醫者疾病救治를하고잇슴니다 이것은日本에서唯一한秘藏良藥으로서古代로부터有名하엿지만 元來에特殊한原料와獨特한調製法에依하야製造하는關係上 大量의製造를 할수업서서他藥店에販賣치못하옵던바 今般當店에서 生覺하옵고 全快者諸氏로부터宣傳되여 日加月增의比로續續注文됨으로 今般當市에出張所를設立하고 날로시드러가는病者를救하기爲하야 直接注文者에게限하야만 送藥하기로하사오니 이런機會를利用하야續續注文하야服用하시고全快하시압을바라나이다 當所에는讀者여러분의便利를 도모하느라고 朝鮮文으로쓴 說明書가잇사오니 朝鮮日報에서보셧다하고、편지나엽서로病勢를통지하시면、治療方法과野久之의由來와全快者의感謝狀과其他여러가지說明書를보내드리고全快의길을밟부시도록專心專力하고자하오며 先金注文하시는분에게는送料를부담해드립니다
內用藥·一週分一圓、二週分一圓五十錢、三週分五圓、外用藥一圓、二圓、參圓等
東京市京橋區入舟町 藥野莊東京出張所 振替東京五四五〇番

水虫たむしいんきん 浸透性深達療法 小林
タムシチンキ (다무시징기)
爽快！爽快！
참으로 잘듯는다! 고하는말은한번발너보신분은다말하는讚辭입니다
그럴일이다。
다른藥劑에比하야浸透性深達力과殺菌力이强하게皮下의潛伏菌까지도殺菌식힌다
其發育을抑制하고 부어서헙어진데를깨끗이保護하야서새로운健皮를再生식혀氣分조케治癒하는것은本劑의特長이다。
살작한번발너보시면아조爽快하게된다。
大阪京町堀 名古屋廣小路 小林大藥房 藥店デパートにあり 藥價 20 30 50 1.00

塗つてこすりコツの藥のキメ
イボコロリ
イボ·魚の目·タコなら痛まずトレル
藥價 30 50 1.00
大阪市西區京町堀 小林大藥房 各藥店ニアリ

어찌하리까?



파혼햇는데 결혼이염녀

問 저는 금년 스물살의 처녀이올시다. 저와한동리에서사는 S라는사람의누이동생과 서로친하게지나는동안에 그의오빠 S라는사람의 편지를받게되엿습니다. 그내용인즉 저를 사모하느니 엇더니하면서 매우 열정적임으로 저도 몃장의 답장을 하엿고 어머님께도 말슴해서 서로 약혼까지 하엿스나 나중에 알고보니 그남자는 아모 장래희망도업고 붓잡것이 업는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야로 근심하든중에 집안에서는 아주 파혼을해버렷습니다. 그러고나니 저쪽에서는 매우 분개해서 저의장래를막느니 어데까지든지 저의결혼을 방해하거니하면서 심지어 제에게 말할수업는 모함까지 하고잇습니다. 사실로 저는 그남자에게 편지답장 멧번한일밧게 업스나 저쪽에서 그럿케떠들고 잇스니 분하고 붓그러워 살수가 업습니다. 지금도 다른곳에서 약혼하자는 말이 작고만 드러옴으로 집에서는 곳 다른곳으로 약혼을해서 속히결혼을하도록하려하는데 저생각에는 S쪽에서헤방이나 놓지안흘가 염녀가되여 차라리 결혼을 하지안코 어데로나 가서 거긔서 뜻이맛는사람이잇스면 자유로 결혼할까하오나 부모님은 그대로두지안코 곳 결혼을 하라고하시니 엇지하엿스면 조켓습니까? (경성일녀생)

당분간집에서 근신하시오

答 아모리 편지왕래엿지라도 잘알지도못하는남자에게 편지를 바닷다고 곳답장을햇다는것은 무엇보담도 당신의 잘못이라고 아니할수 업습니다. 더구나 당신의 어머님과 상의해서 약혼까지하엿다면서 그남자의 성질이나 자격을 잘조사하지안햇다는것은 매우 경솔한일입니다. 그러나 일이 벌서 이러케된 이상에는 선후책을 생각할수 밧게업겟는데 당신의사와 가티 처치를 하엿다가 거긔서 또 해보아도 위험한일입니다. 아모리 당신이 한번약혼햇던 사람이 잇다고 하드래도 사람을 분하하는데 냉정하지가 잇는것 갓지안습니다. 그러니 전에잇서서 분명하게 조치는것이 조흘듯합니다. S라는사람편에서 파혼을 당하니까 분해서 그럴는지도 모르겟스나 당신이 다른사람과결혼을한다고 해방을 놋는다면지 그것을 부리면 자긔 자신으로서도 창피한일이니까 얼마 그러치는 안흘듯하나 만약 정말에 수를거면 지금 곳결혼을하려고 초조하지말고 좀 기달녀보십시오. 시간이 다소오래지나면 이런것은 이처질 수도 잇는것이니까 당분간은 근신하고 기달녀서 모든것이 잇처진뒤에 서서히 모든것을 원만하게 처리하시요. (一記者)

家庭

날개업는천사는 말대신에『우름』

어머니시여 갓난애기 우름을살피십시요

세상에 간난애기갓치 귀한것은업고 간난애기갓치 더 귀하고 중한것은 업슬것입니다. 귀하고 중한 간난애기의 성질을 잘아라두는것은 부모되사람의 의무라고 안니할수업습니다 더욱이 학교를 졸업한지 얼마되지안어서 어머니된 부인들은 간난애의 성질을 잘알어야 귀중한 간난애기를 잘기를수잇지요. 이제간단히 처지라면하게 옷꼬우는 간난애기가 이세상에나와서부터 열두달동안에 성질을 말슴드리겟습니다 그것을 말슴드리기전에 먼저간난애기에 옷고우는 리유와 그표정을 말슴하면

눈물을 흘리지안코 우는 법인데 1, 배가 곱흘때에는 눈을 뜨고 그우름은 다소곡조가 잇습니다 2, 어데가 압흘때에는 악을내면서 두다리를 가드러치고 눈을뜨고 눈물을 흘리면서 명열히웁니다 3, 조림이 올때에는 눈을 가느스럼하게뜨고

하픔을 하면서울고 4, 마음대로 안될때에는 눈을뜨고우나 눈물은 흘리지안코 서 흐르고 5, 지저귀가 저젓슬때에는 하소연하는 곡조로 안타가워울고, 6, 쇠약하고 압허서 울때에는 오래동안 애처럽게울고 자지를 안코웁니다. 간난애기의 성질을 잘모르면 잘자는것도 앎치나 안는가하고 공연한

걱정을 하게됩니다 간난애기가 세상에나와서부터 열두달동안의 동작을 간단히 말슴하겟습니다.

첫재달 젓을먹을때만 깨잇고는 자고만잇스며 밝은데를바라보고 소리나는곳을 돌여고하고 둘재달 빨간것을 볼수잇고 움지기는것을 보면 조와합니다.

웃을줄 알고 자긔의 손을빨지요빙빙도는 작난감을 보여주면조와합니다 세재달 다른사람의 손을빨 지요. 제손으로 쥐인것은 다보지고 손을 옮김니다. 네재달 손을 내밀고 무엇을 잡을려고 합니다. 뭐진기시작하고 놀흔 소리나 웅성을드르면 웃습니다 다섯재달!

물건을 제손으로잡아가지고 조와합니다 어머니 무릅에 셀 … 잘니다. 여섯재달! 사물을보고 알기를 시작합니다 종이를 쥐기를조와하고 것을 바라볼줄 압니다 일곱재달 팔을 벌일수잇게되고 김승알고 기뻐할때에는 소리를 내고 조와라합니다 여덜재달! 자긔

발구락을 가지고놀고 물건을 기어다니며 마음대로 가집니다. 아홉재달…붓잡고서고 손에 닥치는대로 입에넛습니다 열재달…가지고놀든것을 주지안흐면 얼골이 붉어지고 빼앗서면서 악을씁니다 열한달…놀보는 사람을 누구인지알고 밝게 나가기를 조와하며 혼자설수 잇습니다 열두달…음식맛을 알게되고 엄마

아빠를 부르게됩니다 말소리에 재미를 붓치고 것는아희도 잇습니다. 귀중한 간난애기는 이럿케 자랍니다

★……季節의表情……★

털실로짠옷 세탁잘못해서 꼭버리게되는

털실로짠 의복은 좀 이 치지안토록 잘간수해두면 얼마든지오래 입을수 잇스나 아무리 조흔 물건이라도 잘못간수하면 얼마입지 못하고 버리게 됩니다. 뿐만안니라 세탁하는데 따라서도 관계가만습니다. 세탁할때 실을풀어서 잘빠라 다시짜면 더욱 조씁니다 의복 그대로 빨때는약간 따뜻한 물을 한되오홉쯤 붓고 새로 세탁가루비누(술잔한종자반)쯤 섞거서 너머억세게 빨지말고 그저설렁설렁 흔드러서 비누끼가 잘빠지지안흘때는 다시 따뜻한물을 두되쯤 붓고 빙초산(氷醋酸)(약방에서팝니다)을 한종자반쯤 타서 이삼분쯤 담가두엇다가 보면 깨긋할뿐안니라 윤택하고 곱습니다 그리고 말일때도 귀가 축축 느러지도록마시고 될수잇스면 밝가튼데 입기에 알맛도록 손질해서 말리는것이 조씁니다.

비단양말 세탁법

양말은 보통 일이 삼일만에는 반드시세탁을 해두어야합니다 너머지나치게 더러우면 수헤치니까요 그리고 비단양말을 세탁할때에는 비누를 물에푸러서 양말을 무집어너코 문대지말고 빨때초드러빠십시요 그리고 빨면빗물을 방울떠러트려 빨면빗갈이 줘신더납니다 다음 냉수에 헤구어서 그늘에 말립니다.

빨래비누 조코 납분것 아는법

요사이는 엇반가정에서 편리하다고해서 빨래하는데 가루비누를 만히 씁니다. 그야 가루비누에도 품질이 조흔 것이 업지 안캣지오만은 그반면에 집 낫븐것도 도한업지를 안흡니다. 만일 낫븐것을 사다쓰다가는 빨래가 잘못되는것은 말할것도 업고 옷감조차 버리기 십상팔구올시다. 이왕 가루비누를 쓸바에는 조흔것을 골라서 사야합니다. 가루비누중에 『마루세루』비누라는것이 가장 조흔것이어만도 그속에 든 소다의분량은 백분지오나 되습니다. 만일 아조 낫븐것으로 말하면 장찌겁이 술찌겁이 흙과가튼 불순한복건이 반이상은 되엿습니다 번래 순수한 비누만은 끈기가잇서서 곳 덩어리가 지기때문으로 도저히 가루를 맨들수가 업습니다 그래서 할수업시 소다를 넛는것인데 또머리만 외주하장사치들은 장찌겁이 흙을 아모거나 함부로 석거 놋습니다. 그러나 그 가루 비누가 조코 낫븐것을 시험해보자면 조 간단하니 알콜에다가 조금 너허서 아조녹지안는 부분이 만흔것은 낫븐비누요 녹는부분이 만흔것은 조흔비누올시다 그것은 왜그러냐 하면 불순한복건은 알콜에 녹지를 안는 까닭이올시다 처음시험으로는 조곰만 씨다가도 훌륭합니다. 그래서 조코나쁘고를 안뒤 비로소 어느것을 사서쓰기로 정해버릴것입니다

귀가재다 눈치빠르다 하는것은 의학상으로 본다면 ─악화되는날에는정신병─

눈먼사람이 귀가밝고 귀먹은 사람이 눈이밝은 사실은 심리학(心理學)에서 흔히 증명되는바이지만 여하간에 귀먹어리가 귀로듯지못하는대신 시력과기타감각이 퍽예민합니다. 그래서 성한사람이 귀먹어리에게 무슨말을 하다고할것가트면 귀로는 듯지못하지만 말하는사람의 눈의표정과 몸시짓의 미묘한점을 보아 엇던 아라듯는 수가 잇습니다 못듯는다니 눈치채이게 되는 모양입니다 그럼으로 소위 의『눈치놀라는것』이보통사람보다 무척발달 되여서 통어야기는 소리를 질러가며 해도 잘못아라드르면서 자기에 한 납분소리는 용케아라드르 귀치고서는 맥낭한 귀웁시다 하는게 가 빠르다』하는것이 어느정도 를지나면 정신병(精神病)으로 취급될수잇게되니 딱한노릇입니다 례를드러말하면 시어머니가 며누리를 들볶는까닭―나이먹으면 대개로 귀가어두어져서 며느리는 어이해 귀가 먼 아이 이렇게 ○○하○○ 이 제어지도 보입니다 며느리가 … 여 잘못되는 사이라 … 하는 것이 … 정신에도 변조가 오게됩니다. 새로운 갈등(葛藤)즉 요즘레보고든는것은 얼른머리에 드러오지안흐면서 옛날의기억은 기억대로 남아잇서서 이것이 『고집을부린다』『심술을 피운다』하는 말을 듯게되는데 이러한시어머니는 귀먹어리의 귀가젠것과 꼭가튼 성질의것이니 아모리 양전한 며누리라 할지라도 너무 들볶기우면 백번에 한번쯤 시어머니 험담을 하게될것인데 모처럼 가다가 한번한험담이 엇재서 용케 시어머니의 귀에 드러가느냐 하면 범어리 귀재듯이 귀가젠 까닭 입니다 그런데 이러케 귀가젠것이 정도를 지나면 소위 로인성치보(老人性痴呆)라는 정신병이되며 함부로 거짓말하기 시작하며 란간 부셔기를 식히느리라(?) …………하게 되는데 당자는 이러고서 도쾌감을 늣기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평소에 늘생각는것이 눈압해 떠오르고 귀에들리게 되니까 미친사람처럼 되게 되는것입니다. 그다음 절은사람으로도 정신변질자(精神變質者)와 백치귀먹어리가 귀가젠데 정신변질자의경우는 사람의정신작용을 지(知)정(情)의(意)의 세가지라고할것가트면 정과의에장해가생겨 정에만 발달된사람의 감각이 노골대 발달된것과가티 감정의전환이 격심하게됩니다 또는 의지가 약하고 무슨일에고 시들해지는 좀 찰거머리 고요한 말을 해나가는 이러한 사람은 … 세상에 대한 의외로 좀 말 … 하는 말을 … 지굿이 … 귀가 재고 … 기를 예사로알게됩니다 이것도 가되면 별서귀가재고 눈치가빠른정도가아니라 정신병이란 큰병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러타하고 동물에게는 본능적으로 귀가 재게되는수가 잇습니다 바람이부러 나무가우수수하는소리는 귀에안드러와도 외적(外敵)의발소리가 바시락하는 소리는 얼른귀에 드러와 경계를 하게되는지 또는 놀래에 누가뒤에와서렴칠라고할때 등어 해서뒤를도라보게 되는것 ……어린것은 직업에 따라한경에 따라 사람마다다른것이지만 다만 엇재든 귀가 재고눈치가 빠른것이 세상에서 별로칭찬바들 리를 만큼 비극을 자아내는 것을보면 「공적(功績)」도 여러가지일것입니다

입에서 악취나면 미인도 락제 무슨원인으로 나는가?

락지자신에게는 아모감각도 업스면서 자긔의병으로 말미아마 다른사람으로하야금 불쾌감을주게되는 종류의 병도잇습니다. 입에서나는 구취(口臭)는 아는 병인가 그자신은 아모감각도 고통도 늣기는 바업스나 타인과 접촉하며 대화를 하게될때에는 상대자에게 말못할 미안을끼치며 불쾌감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구취는 옛날 사람이나 현대사람을 물론하고 만흔고통을 주기 때문 애친분이랄것도생겨서 사람들로하야금 입에서 냄새가 나지안토록하는 방비수단을쓰게햇다고 봅수 업는일입니다.

그런데 이구취의 원인으로는 제일만흔것이 충치(蟲齒)병으로부터이고 다음 위장병(胃腸病)으로 과 폐(肺)병으로 부터도생기는것입니다 그런데 치과의사가 구취때문에 진찰바드려오는 환자를보면 흔히 냄새가 나는것은 구취의 근본원인은 …이 못 하는 병때문에 냄새가 나기때문에 생기는 구취를 발하는것입니다 냄새나는것을 찻아서 업이 하는것은 하나도 모르 …

냄새나는것을 근원으로 진찰받은 다는것은 이상 스러 생각할는 치료 못하기 때문도 생기 구취의 중류도 … 원인에 따라서 다르다니까 동한 대 … 구취도 … 여러가지 다른종류의 냄새도 생기는 구취입니다

파의사도 아주진저리를 냄니다 이것은 보통 충치로 말미암어서 치수(齒髓)가 죽어 치의 내부의 신경과 혈관을 통하고잇는 부분이 상해서 썩기시작한 냄새가 나는것인데 이러케상대 한가지 한개로말미암어 또 그처럼 냄새가 심한 대 니한개로말미암어 여러가지 병을 이 이저서는 안됩니다. 이구취를 치료하는데는 여러가지 다른종류의 냄새도 … 업에약을 너허서도 잘못됩니다 약을 무엇보다 비위가 상하고 … 치료하는 것보다 … 원인을 차저서 치료하는것이 가장완전하며 현만이 아니라 미(美)적 잇서서도 … 엇보다 신체 엇던곳을 특하고 악취가 나지안케 아 니하지 안켓습니까 천하 일색 청춘 남녀라도 이따위 냄새가 나다면 참낭패입니다

눈섭 입부게하자면

눈섭이 새깜아코 그모양이 꼼게 생기고 잘못생긴데따라 얼골이 선명해보이는 미를 좌우하게됩니다. 근래에는 그럼가려 가늘게 그린눈섭이 대류행인반면에 손도 대지안코 자연스럽게 생긴그대로 두는사람도 볼수잇습니다. 그런대 너머 숫한 눈섭을 그대로두는것은 얼골이 웅불해보이며 선명해 보이지 안습니다 그러니까 눈섭을 액기지 말고 얼굴에 잘조화되도록 줄가느스룸하게 뽑아보십시요 깨긋해보이고 변화해 보입니다 그리고 눈섭이 만흔 사람은 얼골에 바르는 「베니」를 눈섭가운데 약간바르면 아주 고와보입니다. 눈이드러가 사람은 두려운 눈섭이 더욱곱게입니다 그래서 눈과 눈섭사이 간격을 될수잇스면 넓게해서 화장할때 눈섭 에 배니를 약간 바르십시오.

─무지스러운무용─

씨름? 아니올시다 이래보여도 땐스! 어땐스는 요즘 미국에 새로생긴 무서운세력으로 류행되여가는 땐스입니다 남자한사람에 여자한사람이 짝짓는것은 다른것이업스나음악이 시작되면별안간 달려드러 메여다꽂고 팔다리를 비틀고싶허면 마루바닥에 자빠트리고 목을졸르기까지 합니다 음악소리가나고거기에따라 「리듬」이잇기에 그러치요 그러치안으면두나 땐스랑 파에서도 이땐스가 류행되여따리들이 이고 머리가 터질 념이업지안엇습니다

家庭醫學

얼굴에사마귀

問 얼굴에 사마귀가만히 낫습니다 어떤치료를하면 완치하오릿까 무사마귀는안이고 정사마귀올시다 (大學病院小川外科 金永韶)

答 강렬한 사혼로 부식식히여 업세수잇스나 전문의를 치저가서 의론하야보시오 (李錫申)

수염이만흔데

問 저는이십사세의 남자인데 보기에 대단흥하게 보일만큼 수염이만히 나서 무엇보다도 첫재시에 얼마든지 ……어 하는수업이 한탄 하시 … (北靑因汚 S生)

答 여러가지 방모제가 발매되어잇스나 완전히 발모되지 아니하고 결국은 면도하는것이 안전합니다 장년남자에게 수염이 나는것은 예사이고 아모흉이될것업습니다 혹시 면도하면 잇겟꼬시지고는 자조면도하면 고마이 안입니다. (大學病院小川外科 金永韶)

世界文藝童話集 어머니 ②

(丁抹 한스·안더-슨作) 崔秉和譯

숲속은 길이여섯갈래로 갈리어 잇섯습니다. 어디로가면 조을가하고 주저하엿습니다. 그곳에는 복사나무가 한떼가잇섯습니다. 찬겨울이므로 입사귀도업도 꼿도피여잇지안햇습니다. 적은가지들은 모조리 고드름이 달려잇섯습니다.

『당신은『죽엄』이 나의 아들을 데불고 지나가는것을 보시지못하시엿습닛가?』하고 어머니는 무릅습니다.

『네 보앗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금방 어려서죽을것 갓습니다. 저를 가슴에 안어서 따뜻하게 녹여주시지안흐면 말삼드리기 어렵습니다. 저는 어름이되여 버렷슬것갓습니다』하고복사나무는 말하엿습니다.

어머니는 복사나무를 힘잇게 가슴에 안스고 녹여주엇습니다 복사나무는 어머니의 부드러운 가슴을 찔러서 피가 큰방울이 되여서 흘러떠러젓습니다. 복사나무는 파릇파릇 어린입사귀가 움츳움츳 뻐더나왓습니다. 그리고 꼿들도 피엿습니다. 복사나무는 어머니에게 『죽엄』의 간곳을 가르처습니다. 가는동안에 커다란 호수에 왓습니다. 그곳에는 배도 뽀트도 아모것도 업섯습니다. 어린 몸으로 거리가기에는 아즉 어름이 얇고 몸속으로 건너가기에는 너무나 어름이 단단하엿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아들을 차저라고하며 어떠케해서든지 이곳을 건너가지 안흐면 안되게 되엿습니다. 어머니는 엎드려서 렷못물을 다 마시여서 말려버릴랴 고 하엿스나 그게 될 리치가 업섯습니다. 그러나 슬픔에 짝찬 이어머니는 이러한 때에는 보통때 사람으로서는 될수업는 일이라도 반드시 될수잇스리라 고 미더젓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안됩니다』하고 연못이 말하엿습니다. 『그것보다도 두사람이 의론하는편이 빠르다. 나는 진주를모흐는것이 무엇보다도 조와합니다 당신의눈은 내가 아즉까지 보지못하든 그것은 곱게빗나고잇는 두개진주입니다. 당신이그 눈을두개가 나의품속에 울면서 떠러드려주시면 즉시 건너편으로 건너드리고『죽엄』이만드러논 온실(溫室)에 드러가게해드리지요. 『죽엄』은 그온실속에 서 여러가지꼿과 여러가지 나무를길느고잇습니다. 그꼿과나무들이 어느것이나 다 사람의평생』입니다』

『아! 내아들만 차저올수가잇다면 무엇이든지 깃부게 드리지요』어머니는 이러케 말하고 더욱 더욱 몹시울엇습니다. 두 눈은 그눈물로말미아마 흘너나와서 연못속으로 떠러젓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두개의진주가되엿습니다. 연못은 즉시 어머니를 밧드러서 맛치 날개우에나 태인것가티 무사히 건너편언덕에 옮겨노아주엇습니다

曆

十月一日(火)

舊九月建丙戌(小)初四日 庚戌·金·室·除

●祭祀·嫁娶·移徙·助士·上樑己時 安葬에宜함

●寒露九日(舊九月十二日)

●霜降卄四日(舊九月卄七日)

라듸오

三十日(月曜日)

◇同午後六時〇〇分 吹奏樂 救世軍育兒院밴드 指揮 W·E·노─웰

◇同二五分 講演 國勢調査의申

◇八時三〇分 老之曲 二、興民樂

노래	金	水晶
玄琴	金	雨嬉
楊琴	金	相淳
短簫	金	永根
杖鼓	金	一宇
노래	姜	石燕
노래	金	弘九
笙簧	姜	龍植
大笒	池	永根
奚琴	金	載德
竇樂	高	管絃團
普律	DK	長春不
玄琴	金	雨嬉
洋琴	金	相淳
大笒	金	永根
杖鼓	金	一宇

◇同八時 朝鮮歌謠의變遷(京城으로부터 全國中繼) 一、歌曲 二、春打鈴 三、二八青春歌 四、新調아리랑 五、處女總角 金駿泳編曲

◇同七時三〇分 記念講演(第一日) 始政二十五週年의前日을當하야 朝鮮總督府事務官 金大羽

◇同八時 流行歌 一、一夜夢 二、정노새 三、蘆花三千 四、南國의混聲 蘆碧花 伴奏 DK管絃團

◇同八時二五分 唱劇調 一、短歌天下泰平 二、唱劇調春香歌中「國石歌」 宋萬甲 鼓手 池龍九

◇同八時五五分 春節歌外 1、춘절가 2、사설난봉가 3、자진타령 4、자진방아타령 5、청사사리 金玉眞 細笛 高載德 律唱 鄭德燮

◇同九時一五分 關山戎馬의演藝

十月一日(火曜)

◇午前八時 官民合同始政二十五週年祝賀式實況─朝鮮神宮前廣場으로부터─

◇同九時一〇分 朝鮮總督府始政二十五週年記念式典實況─總督府廳舍東側廣場으로부터中繼─(京城으로부터全國中繼)

◇同十一時 始政以來物故功勞者及殉職者招魂祭實況

◇午後〇時五〇分 歌詞 一、春眠曲 二、길軍樂

◇同一時十五分 流行歌(레코─드) 金蓮紅 鶴點紅 大笒 金永根

◇同六時「기미가요」와唱歌 水下洞 公普生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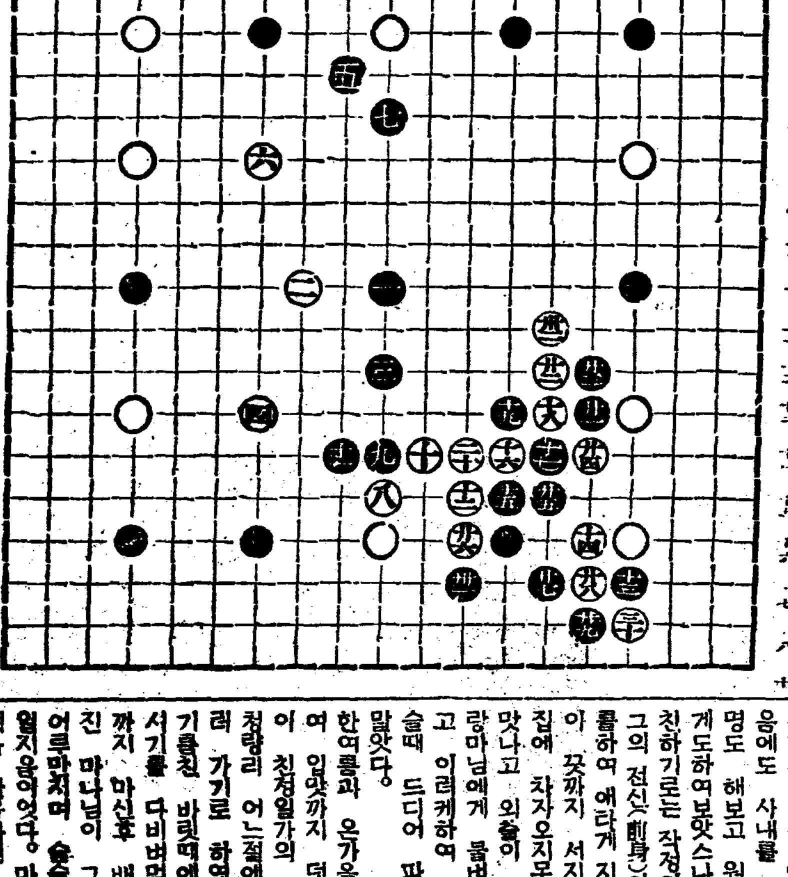
◇同六時二五分 記念講演(第二日) 始政二十五週年을當하야 總督府社會課長 嚴昌燮

◇同七時三〇分 記念講演 朝鮮總督官邸로부터中繼(京城으로부터全國中繼) 始政二十五週年記念日을마즈면서 朝鮮總督府陸軍大將 宇垣一成

◇同八時 朝鮮軍司令官 陸軍大將 始政二十五週年에際하야 朝鮮軍司令官 陸軍大將 川島義之 … 齋藤實

本社主催 圍碁對局譜 ─2─

白 丁奎春
黑先 權五慶 }當局 秀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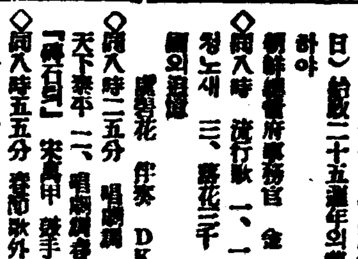
【●二〇】巳의十四
【○二一】巳의十三
【●二二】庚의十三
【○二三】辛의十四
【●二四】戊의十三
【○二五】己의三
【●二六】戊의三
【○二七】戊의十四
【●二八】己의十五
【○二九】辛의十六
【●三〇】己의十七
【○三一】戊의十七
【●三二】戊의十六
【○三三】丁의十六
【●三四】辛의十七
【○三五】巳의十二

◆考慮의 夕氏評

黑은 戊의 十三으로 白을 間迫하고 白은 戊의 十四로 黑後를 斷하니 庚의 十六黑棋內에 不得不分이 潛在함으로 黑은 巳의 十七 十丁의 十六圖 公殺과 自身修正에 方相弄忙하야 對後風雲이 交融於二人拳上이로다 黑의 推出之方과 白의 防禦之術은 若非精研深究면 難免一失일가 하노라

短篇小說 女子의마음 (4)

張德祚 作 安夕影 畵



마음은 점점 타오르나 어찌할 작정조차 나서지 안햇다. 마음갓하서는 훌떡 뛰여나와버리는것이 제일이겟스나 인제 이만콤이나 죄상이 들어낫후이라 손을끈코 나온다하드라도 또한 푼 달콤한지가업슬것이니 무능한 젊은사내와 당장 입에 풀칠할것이 문제엿다 그럼으로처음에도 사내를 얼가동생이라면 명도 해보고 원척족하라고 핑게도하여보앗스나 원래 사고무친하기로는 작정이된 사람이요또 그의 전신(前身)이 언제나 방해롭하여 애타게 지어내는 거짓말이 끗까지 서지는 못하엿다. 집에 차자오지못하게되면 나가 맛나고 외출이 자즈니 또 호랑마님에게 룸버랑을 맛나게되고 이러케하여 가울도 깁허진 슬때 드디어 파탄의날은 오고 말앗다.

한여름과 온가을을 청의일로하여 입맛까지 덧치엿든 마나님이 친정일가의 상없을 기회로 청량리 어느절에 점심을 먹으러 가기로 하엿다.

기름친 바퀴때에 고사리 두보서기를 다비벼먹고 사이다한병까지 마신후 배속까지 쉬원해진 마나님이 그럼직한 가슴을 어루만지며 숭숭 마른풀바를건얻지웅이엇다. 마침 조고만 언덕을 올라나려 절로향해 밟을옴기려든 그는 문득 저편어덕에서 들려오는 어떤 말소리에 귀가 번쩍 뜨엿다.

『향화!』하고 마나님은 엄지 머리채를 휘여잡엇다. 싸내의 억센손이 마나님의 따귀를 갈기는 소리가나고 마나님의 고래고래 질으는 소리에 사람들이 달려왓다.

그들은 어데를 어떠케 흡흡아 무엇을 라고 집까지 들어왓는 지 모른다. 분함에 채여 올라가련 정떡어진은분처와 악에바쳐 정여시든 녀온후에도 팡라한듯이 서슬을 고 재이고하엿다.

『이번 이화냥년 뱅어리를 변』 마누라는 부르르 얼에 눈을 삼키며 무덕 무덕 저여나온 머리털을 뽑뎌다. 하로도 걸는 지지안헛다.

『알앗다 알앗서, 내년이 날위해 선서것겟니?』 얼일이 이러케 벌러저지 끗끼지 온당하게 처리하라는 영감도 다시 어떠케 수습할수업지 항화는 입은옷 가진세간가 아무 수당도 업시 초라하게 쫏겨 나고 말앗다.

『오야 웃지마랑 압호로 조흔 생활을 차저가는데 왜 울기는 그는 치마자락에 매달리우는 계집애를 달내면서 곰곰 한을 정신을어뎟다.

『그까짓 데련은년엇들이고 저래로 돈것은 개색기라도 내게는 안 드리겟다』 마나님에게 어린에 을 맛나고 뭐 찻지 나오는 이를 맛나고 되 향화는 『너나 나나 가른 신세』를 울엇다.

항화의 차지요는 도수가 정정 마하지고 향화의 정열이 더욱 놉하갈수록 두사람의 숀운명 감 마나님의 귀에 드러가지안 흘수업섯다.

『정오쟁이 웃작렛다』하고 영감은 어정히 용서하고넘기려 하엿스나 마나님은 목인할수업 섯다.

첫재는 『다시없는 마누라』로알 고잇는 영감의입에서 한밤거집 일로 훔거 다르다는것보다는 『더 욱관대한사람』이나 되고저하는 허영과 또한가지는 윤식평생에 자식업는박정이 않뒤로 달이되 여 영감이 젊은거질에대드리는 것을 마지못하엿스나 이런조혼 기회를 장을바에야 어찌 엽거 에 화근을 업세지 안흘까하고 마나님은 딸을 부르거더다. 향화는 멧번이나 큰대에 불리 워가서 호령도 맛나고 문초도 바덧스나 그러면 그럴수록 처 음으로 사내를 안 숫처녀처럼

파연우연이러면얼굴수록에 일로 울도 록 여러다. 주저하지 본능적으로 불중 기는 우사람의도양과 웅말 그 일스건 상으로 장동을 피엿다 허장(虛張)적인 어마나님의 얄 그 자식 들어내고마는 움에도 크게 하거니와 반반하게 쳐음으로 만 사려퍼이는 그의마음을 어데지 도 끗까지 지빠는 이지담이야 사아니유』

『글세 그게 무는 여자는 심 술을 씻근거롭다』하고 거칭은 목사 볼을뚜렛다! 무엇이라 사내의 떨리는 손목아 존소리가 할청이나 들엇다.

『그 따저며 떨이구, 아이 생 말로 저주바다 올든것이다』 가장해두 지긋 지긋해!

『지긋 지긋한년은 이런 나서 거집은 치마를 걸고앉이서드요 거라』 마나님은 벌러가터 소리를 질 으며 향화에게 달겨들어 그의

0004646

「콩쿨」審査後感

聲樂科

金文輯

今番 朝鮮日報社에서 主催하는 音樂콩쿨은 朝鮮에 잇서서 처음 試驗으로 多少 缺陷의 늣김을 가지고 잇섯스나 意外로 良好한 成績을 엇기에 이르럿다. 勿論

世界的 水準에야 견주어서 말할바이 못 되나 朝鮮의 現實로 보아 相當한 數爲에 達함이 업다. 그런데 審査員의 한 사람이엇든 나로서는 그 審査에 잇서 적지 안한 困難을 當하얏섯스니 첫재로 비등비등한이들의 音樂을 採點한다는 것이 困難이요 둘재로 音樂主觀이 서로 틀리는 審査員間의 統一意見을 세운다는것이 困難하다. 지금 審査後의 늣김을 써달라고 한번 그 困難을 回想하지 아니치 못하게 된다. 그러나 審査員으로서 他部審査員의 判斷을 冒瀆한것이다. 그以上 더 賢明한 方策이 업다고 생각된다.

우선 바이올린部의 文學準君

領域을 바라는 [illegible] 本領 ...

兩君은 ...

練磨로 ...

科學的 ...

印象을 ...

[illegible]

學藝

國際法의 法理論的基礎

—그學說史的考察에서—

(五) 申基碩

國際法이 法律的制裁를 具備하지 안엇다는것은 相對的에지나지못한다 心理的 道德的制裁도 는輿論에 依하는制裁以外 報復復仇, 封鎖, 干涉, 戰爭等의 實證的制定을 볼수잇다 國際聯盟에 依한 集合的干涉은 今日의國際組織으로보아 만흔期待를가질수 업다고하드라도 制裁可能性을 具體化한點에 意義가잇다고 볼것이다 聯盟規約 第十二, 十三, 十五條의 約束을 無視하고

戰 爭에訴한 聯盟國에 對하야는 의制裁를 規定하고 잇으며 非聯盟國도 勸告를 受容치아니하고 主權의 自由發動에 맷기는 國際法의 方法을 取할때에는 聯盟의 共同的 制裁를 할것을 規定하고잇다 그러나 聯盟規約도 超國家的權力으로서 法律을 成員의 强制할수잇는 超國家的權力이 存在하지 안는限 戰爭狀態를 否認할수업스며 따라서 合法的으로 戰爭을 할수잇는것이다 聯盟規約 不戰條約等으로因하야 國際紛爭處理의 一方法으로서 實力에 依하는 戰爭權이 制限되는것은 事實이지마는 戰爭을 全然否認하지 안은만큼 制裁의方便으로서 容認할수잇는것이다.

이와가티 國際法은 實證的인 制裁를 許容하는것이며 따라서 國際法自身이 制裁可能性과 背馳되는것은아니다 다만 制裁가 不完全하고 實行이 確保되지못한 것이다 이것이 發達過程에 잇는 國際法의 特徵이라고도할수 잇다.

나, 國際法의 優位에 依한 構成—國家는 그地域의大小, 軍事的能力의强弱 또는 政治的勢力의 如何에 不拘하고 法律的으로 同等的 地位에잇슴을 認定하는 國家平等權의 存在의 事實, 國家가 그 政體 其他憲法上의 變更에 不拘하고 國內法的으로는 全然 新國家의成立을 認定함을 要하는 ... 國家가 생기엿슴에 不拘하고 國際的으로 同一性을 持續한다고 認定하는 國際慣習法 其他 [illegible]

國際法이 法律的制裁를 具備는 此를說明키 어려운故로 國家의 法秩序로서 國際法의 存在를 認定하려는것이다

『켈젠』은 同一한立場에서 二個의 法秩序가 同時에 妥當性을 가질수업다 왜 그러냐하면 法律學的認識의

要 請에 依하야 妥當되는 法律規範은 統一的 또는 排他的 體系가 아니면 안된다 一元的構成에 잇서서는 國內法優位構成과 國際法優位構成이 理論的으로는 同等의 價値를 가지고잇다. 그어느것을 選擇하느냐는 認識者 또는 評價者에 依하야 超法律的인 倫理的 政治的 理由에 基하여서만 決定된다『켈젠』自身은 國內法優位構成을 認識論上의 主觀主義와 政治上의 帝國主義와 結合하고 國際法優位構成은 認識論上의 客觀主義와 政治上의 平和主義와 結合한다 고하고 다시나아가 法律的客觀主義의 道德的優越性을 말한것

또『크랍베』는 國際法과 國內法의 區別은 그拘束力, 그內容 또는그主體의 如何에잇는것이아니라 超國家法(크랍베는 國際法을 超國家法이라불은다)이 國內法보다 넓은團體에 妥當된다는點 即法域이 크다는데잇다. 法의 法的價値를가지고잇다 近代國家觀念이 充分히 明確하게 理解되는

主 張한 『펠드로쓰』는 ... 最初國內法優位의 一元的構成을 主張한 『펠드로쓰』는 法律的世界像의 統一性을 法律的으로 說明하려고하야 國際法優位論으로 轉向하엿다

[illegible]

考證行脚

海西의名勝, 白川

(3) 方鍾鉉

그러나 어맨 처번 생각은 別로 分明하다고할만한 새로운 知識을 내에게 惠與하지안엇다 이제 그邑誌所載에依하면 別로 特別한 記錄은 업스나

雉岳山在郡治北一里鎭山自大登山起伏南來勢極峭峙東拱華岳南衛大海其最高峰名曰望德城石猶在西面周遭絶頂有井東蓄爲陴峰又南爲蓮花峰……

[illegible]

城郭 파이山이 어떠한 史的事實이 存在한 이와가티 되어잇스므로 이

土城在城南村亦不知何代所築而 郡城不知何代所築也有基址也 尙有基址……

또 이邑誌의 城郭을 찾아보면 그老人이 信用할수는 업지만 그래도 一傳言이라고 할만한 數言을 提供하는것이 잇으니 그것은 이러하엿다 이城은 壬辰亂時에 싸우던것으로서 저 한리遞便에 살든 義將軍이라는이가 그城을 차야겟다고 每日 여러사람더러 말하나 한사람도 모히지도 안코 應하지도 안음으로 혼자 쇠시랑(農具)을 둘러메고 城을 치려고 떠낫더라고한다 그러나 이때마침 漲溢 비가와서 물(漲水)이 크게낫스므로 그사람으로는 이한다리를 건너가게 못되엇더라고 한다 그런데 그때에 이다리는 커다란 돌다리어엇든 關係로 이것은, 물에 떠나가지안코 잇스므로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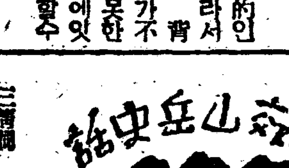
追兵 이 쫒겨서 오다가 이다리를 허러버렷다고 하야 山城으로 달려가 數十名을 쇠시랑으로 때려죽이고 衆寡不敵 [illegible]

近代山岳史話

北岳山 (9)

白蓮峯下黃山舊基

湖岩



三淸洞 水泳場附近의 松林사이에 조그만 洞內이 잇스니 이것이 곳 有名한 白蓮峰이라 일도 日本式新屋이 한채잇고 그여해 또朝鮮式古屋이 한채 잇는데 이古屋이 바로 黃山金道根의 別莊터로

甲午前 까지도 局出身이라고 稱하는 武科하고 初仕하지못한 武夫들의 寓居가 되어잇든것이다 黃山의舊基는 別莊에서도 數百步를 南쪽으로 더 내려와서 三淸洞二十五番地에 잇다 門前에 車馬가 구름가리모 는 當年 黃山이 勢道宰相으로 大邸宅에

도 一世를 騷動하든 黃山의 舊基는 지금에 와서는 荒凉한 雜草가 무성하고 그터에 化하고 말앗다 그러나 數千坪이 넘는 大基址의 周圍에는 가트름한 淸溪가 에워잇고 또 큰 雜木과 명공이 둘러잇서 스스로 別區域을 일우엇스며 예옹을 하나와 그리고 오랜 배나무 멋그루가 오히려 남아잇서 旣往의 榮華를 말하는듯이다 그 田園의 一隅에 새로생긴 濟民에 가서 무를적 그土地의

所有權 은 海州鄭行의 手에서 또그 一部는 遺弟其에 서 ...

갓다 하거니와 黃山은 말할 것도 업시 近世外戚의 世道를 시작한 金祖淳의 第一子로 첨자는世道宰相이다 그가 한창 서술이 프르렀슬때 有名한 勸勢가 하나 잇다 어느西道사람이 求仕하러 留京할새 黃山門客이 되어 보려고 하엿스나 그길을 좇해서 는 어들수업섯다 그리다가 어쩌 어찌해서 黃山에게 한번 謁見할 機會를 어덧지만 到底히 黃山에게 각가이할수는 업섯다 그 求仕客은 多年留京에 만흔 金錢을 消費하고도 生員進士하나를 어떠하지못하고 그의 家財는 거의 다 업서지고 말앗다 失望한 求仕客은 出世하려는 그 壯心조차 이미 제가 되어버리고 집에 돌아갈 생각만 懇切하여갓다 이때 自己鄕第에서는 老妻弱妻가 작고

歸鄕 을 재촉하므로 할수업시 그래서 一切斷念하기로 決心하

게된 그는 오랫애를 다써 우 黃山大監에게 보이고 辭退를 여자왓드니 大監께서는 求仕客의 姓名조차 이즈섯다 그는 그럼바께 업는것이 國事에 奔忙한 大監이라 아무리 聰明하드라도 週期求仕客가든것을 어느겨를에 一一히 念頭에 둘수 잇스라 求仕客은 이에 일중더 失望하야 大監門前을 물러나와 키라는 自己故鄕으로 돌아가다 집에 돌아와서 보죽 남 크다란

瓦家와 門前玉沓은 다 딸아먹고 老妻와妻子는 쓸어저가는 數間의 오막살이에 들어 잇슨데 그情景이 慘酷하야 볼수업섯다 그는 留京求仕하는지 多年에 온갖것을 남긴것은 가리쓸한 貧窮뿐이요 不平과 還歸이 업슬수 업섯다 밤에 잠을 일우지 못하고 어정어정 거닐새 때는 八月中秋가가워 月色은 明朗한데 앞시내에는 (鶯)가내린다 그는 쨍쨍거리로 개를찾아 구해에 너흐니 엄마...

意味와 主題

午前의詩論技術篇

(7) 金起林

말은 恒常 어떤事物을 代表하는記號다 그代表되는것이 말에잇서서 可想的인部分이다 그것이 말의內容이요 意味다 따라서 記號로서의말이 다른客觀世界와의

關 係를맷고잇는 部分도 主로 이意味의方面이다 詩와客觀世界와의 關係에 對하야는 今年『藝術』第三號 拙稿『客觀에대한 詩의포-즈』를 參照하기를 바란다)

또한 意味의 斷片이 綜合되어 詩篇의 『이데-』가 되고 그 個個의『이데-』가 詩人의 全思想體系에 有機的으로 連結되는것이다.

그런데 現代詩에서 意味는 매우 虐待되여 왓슬뿐아니라 나아가서는 意識的으로 拒否되엿다. 純粹詩는 詩의音樂性을 高調하므로서 意味를 輕視하엿고 『포

말의 關係에 依한 意味 ...

境 遇에 依한 外在的秩序에 依하야 構造性을 內在하가지고 잇슴으로서 全體的 秩序가 形成된다 한개의 作品 이라고해도 조코 目的의 秩序(또는原理라고해도조코 目) 그래서 그 秩序가 必要하엿는것이다.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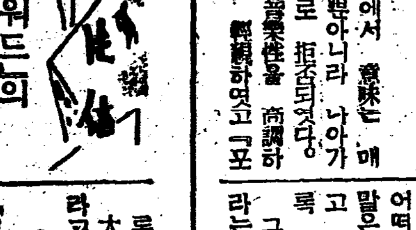
個個의말은 意味그것을 內在해가 지고잇다.

우리는 말의소리와 모양의運動과 姿勢에依하야 생겨나는 數理的인

效 果는 必然的으로 겨기에 나타나는 意味를 어떠케 막을수업다는것을 아럿다 말은 意味를 떨어버릴수가 업고 따라서 詩는 意味를가지도록 宿命되고잇다.

그일은 結局 말은 有機的이라는데 歸因한다.

個 個의 말들이 어떠한 秩序에 依하야 배列되고 그것은 詩築의 外形的으로 짜혀진다 그리하야 形態를 엇는다 한 [illegible]



「워-즈워드」의 記念博物館

人造血液完成

[illegible]

「쿠크라이나」 [illegible] 「그라스미어」 [illegible] 「워-즈워드」의 [illegible]

黑風 【143】

韓龍雲 作 金緋超 畵

해후(邂逅) 26

『그것은 왜 부트니』

하는 창순은 눈섭을 찡그려고 애처롭는듯이 말하얏다

『나는 어려서 도화 배울때부터 나븨 그리기를 조아한다 이것을 갓다가 책장속에 너허두면 그대로 마른다 그래서 그것을보고 나븨를 그리면 꼭 그대로된단다』

『그럼 그것을 갓다가 책장속에 너허서 말리겟다는 말이냐』

『그럼』

『그럼이 무에냐 너는 나븨를 생각해보아라 가을바람에 피어잇는 만치아니한 꼿을 사랑하기 위하야 마음대로 노는 어여쁜 나븨를 공연히 분뜨러서 말녀죽인다는말이 무슨 말이냐 인정도 엄기도 하다 어서 노아주어라 제맘대로 날어가게』

하는 창순은 조금 찡그린는 눈으로 봉숙의 얼굴을 보더니 다시 봉숙의 손가락 새이에서

이니까 생명을 빼앗어도 관계가 업다는 말이로구나 그것이 양육강식(弱肉强食)의원측이라면 그뿐이다』

하는 창순은 봉숙의 나븨가진 손을 잡으면서

『그나저나 그까짓것은 고만두고 꼿과 나븨를 따로하지말고 꼿에다 나븨를 올려노아요 그리하고 꼿만 들고가요 그러면 나븨는 제절로 따라가지오』하면서 한손으로 봉숙의 어깨를 가벼웁게 친다

『나븨가 날어가면 엇저게』

하는 봉숙은 뒤로 틀렷든손을 차차 압흐로 돌리다

『날어가기는 왜 날어가 나븨는 꼿을조처 다니는것인데 꼿을 마다고 날어갈리가 잇나요 이리주어요 내가 해보께』하고 창순은 봉숙의 손에서 꼿과 나븨를 빼앗는다

『어듸 해보아요 암만해도 내기속지 날어가면 나는 몰라요 날어가면 다시 잡어줘야돼요』

하는 봉숙은 아까웃것을 내

비틀 빼앗을듯이 봉숙의 압흐로 까히 온다

『너는 학교에가서 생물학 표본들을 보면는 대성통곡을 하겟구나 과학의 발달은 실험(實驗)으로 되는것이란다 나는 나븨의 표본이 업서서 걱정을 하얏더니 잘되얏다 다르 사람들은 봄나븨만흘 그릴줄 알지마는 나는 가을나븨를 그리게 되얏구나』

하는 봉숙은 나븨가진 손을 뒤로 돌려서 숨긴다

『그러면 꼿한송이를 꺽거다가 가리너허 주어라 나븨가 죽더래도 사랑하는 꼿이나 안고죽게』

『그럼 그럴까』

하고 좌우를 살펴보면서 딸리 거려가서 장미꼿 한송이를 꺽거가지고 나오는 봉숙은

『공원의 꼿을 꺽는것은 범령의 위반일뿐 아니라 공덕(公德)을 무시(無視)한는것인데 창순이가 명령한것이니까 나는 몰라요』

하면서 창순의 얼굴을 힐끗 보다

『그러텃다 공원의꼿을 꺽는것은 강한자의 법령이 잇스니까 두려웁고 생명이 일반이라면 나븨를 죽이는것은 살인죄(殺人罪)와 가튼것이대그 런것은 형법에 관계가업는』

『내 그러타니까 저를 엇지니 나는 몰라요』

봉숙은 원망 스러웃한 눈으로 창순을 본다

창순은 빙긋이 웃스면서 나븨의 날어가는것을 끗까지보다가 뵈이지 아니한뒤에 눈을 돌려서 봉숙을 보앗다

『너는 사람을 잘 속이는고나 알고 속이는 너보다 모르고 속는 내가 더 용하다』

하는 봉숙은 창순의손을 잡으면서 우섯다

『선생님 누가 더 용해요 속이는 사람이 더 용해요 속는사람이 더 용해요 누가더 용한지 선생님이 판단해주서요』

창순은 왕한을 보면서 이러케 말하얏다

『두분이 다 용하지오 창순씨의 지혜가 아니면 속일수가 업고 봉숙씨의 순진이 아니면 속을수가 업스니까요 그러나 그보다 더용한 사람이 잇지오』

하는 왕한은 무슨비밀을 가진듯이 말하얏다

ウテナ 우테나

バニシングクリーム 바니싱크림

雪印

希望의 凉秋!

날노 더욱 빗나게

地肥로부터 힌빗과

香氣로운 내음새의

그 절문 氣品……

雪印으로 붓돗든

당신의 希望

눈에띄울만치 누구든지

어엽부게되는……

無脂肪性 三十二錢 六十四錢

▲粉발느기가곡좃코

▲化粧밀니는것을막슴니다

▲버스꺼름도綺麗하게떨고

▲여드름돗지안슴니다

▲낫빗에和色돗치며

▲面刀한뒤에도

술적化粧下에발느시면

술적地肥에발느시면

男子들도雪印을쓰신다

東京本鄕 久保政吉商店

慘! 鷄卵大의雨雹
農作物은거의全滅
……八十老人無慘致死……
保寧郡下雨雹慘禍

【保寧】지난이십륙일오후시십분경부터 두시십오분까지 약두시간동안에 계란마지한 우박이 쏘다저서 팔십로인을 참사케하얏스며 농작물의 전멸상태를 인운참사가잇다 조사한바에의하면 보령군미산면 평라리(保寧郡嵋山面平羅里)에 거주하는 리군옥(李群玉)(?)로인은 자기손여간난(干蘭)(?)을 다리고 뒤산으로도토리를 따려갓섯는데때마츰 계란마한우박이 쏘다저서 일시혼도되엿든이 일어날 힘이업서서 그대로 무참이도 참사하엿다한다 그리고 미산(嵋山)등지의 농작물은 전부 전멸상태에 빠저잇는형상인데 채소등은 말할것도업거니와립도(立稻)도사분의일반계남지 안헛다는데 일반농가의 비참한 정경이라한다

被害千二百町步
損害額卅七萬圓
靑陽郡下의雹災後報

【靑陽】충남청양군내의 풍바재는 긔보와가티 극심하야 인심이 흉흉함으로 당국에서는 인심을 무마하고 구제방침을 백방으로 연구중이라하며 전긔손해액중 회성면분이 이십팔만원이나 된다고한다

新禱治病한다고 金品을詐取

【仁川】밋지못할 무당에게 금품만 절취당한사건=전남화천군화천면벽천리(和川郡和川面柳川里)김복득(金福得)(?)이라는 무당은 미개한농촌으로다니며 우매한 부녀를 속이여 생남(生男)치병(治病)등을 빙자하고 다수한 금품을 사취하든중 지난이십일경 상주군청(尙州郡廳)에 근무하는 김모의 장남 인수(仁洙)(?)가 병으로 항상신음하고잇는것을 걱정하고잇는 그의처정씨(鄭氏)(?)를 꾀이여 자기가 기도만하면 완치한다고 속이여 시가칠십여원의 금비녀와 금반지한개와 현금삼십여원을 편취도주하야 인천에 잠복하야잇다가 지난 이십오일 소관서원의손에 체포되여 방금 엄중취조중이라한다

楡岾寺史蹟碑 建立計畫進捗

【高城】오십삼불의 전설로 유명한 금강의최거찰인 유점사는 의절이려과려에는 누구나 감격하며 놀나지안흘수 업섯다는바 후원한 삼지국독자에게는 활인우대하엿는데 제이일은 초등학교아동에게 체육사상을 특히보급시키기위하야 오후 한시부터 세시반까지 력암공립보통학교에서 력비(力比)긔합술등 실연을 공개하엿다한다

거금입천구백삼십이년전에 조선에 제일먼저 창건된 고찰로서 이절주지 김용악(金龍岳)화상은 세계적명사인 금강산에 이려틋 유구한 력사를가진 고찰이 잇다는것을 소개하고 그녀할 사적비가 업슴을 유감으로 생각하야 경비삼천원의예산으로 그 건립계획을 세우고 수일전부터 그준비를 진행한결과 오는시월 중순경에 제막식을 거행하리라는데 건립장소는 동사부근의길엽히서부도장(浮屠場)이라한다

五千圓豫算으로 興振學院을新築
內湖住民의教育熱

【興南】흥남읍 내호주민 일동의 필사적 로력으로 거금십년동안부준한경영을 계속하고잇는 흥진학원은 금춘이래 신축을계획하고 그자금모집에 열중하든바이제 모-든 준비를 완료하고 십월초순에 신축을 실현하리라한다 이제그계획의 상세한것을 발표한바에 의하면 긔지매입에일천오백원 교사건축에 사천원기타 설비에천원 합계오천여원의거대한예산으로 현재재적아동수가 륙백오십팔명 졸업생수가 일백사명 직원수가 륙인이데 증축후에는 실로 내외설비기타에 공립학교에 조금질배업는 완전한 학원이 되리라한다

敎堂基地寄附

【安孫】경북의성군 안계 예수교 장로회에서는 교도가남보 느려가는중 폐배않을 신흥군저 이러배반으로개혁하야왓스나 적당한긔지를 어지못하며 만흔고통에자여잇는중 동시장에거주하는 김상학(金相鶴)씨는 자긔의소유인긔지이백여평을 동교회당 신축긔지로 자진의연하엿는데 일반교역자와 교도들은 씨에대한늣지를 칭송중이라고한다

熙川名勝古蹟
保存會의組織

【熙川】평북희천군내에서는 지나이십륙일에 유지 오륙십명이 당지명륜당에 모혀 고적보존회를 창립하고 임원칠인을 선거하여 일인당 오십전식으로 회원은 얼마던지 모집할 계회인데 벌서 입회신청자가 일백구십사명에 달하는바 향변에 국유로 도라가면 우농정과 영파두(營將亭、影波臺)등 정각을 허러버린다는 문제가나자 이에 분개한 군민들은 이것을 대금으로 파상하드라도 민유로만들어 영원히 보존하자는 목적하에 전긔와가티 보존회를 조직하야 여러가지를 토의하고 폐회한바 임원에 당선된 제씨의씨명은 다음과갓다한다

會長崔鳴翰◇副會長金龍奭◇總務韓雲鴻 金學基◇會計黃炳善 外幹事員五人 顧問五人

絶勝의金剛山
探勝團員募集
本報元山支局主催로

【元山】때는 바야흐로 천고마비의가을 바다로 산으로 우리들의발길을 잇끄는 류람의 씨즌이왓다 이때를 당하야 본지국에서는 일반탐승가와 지리한여름동안 더위와 몽진에 착혀 고통하던 제위에게 이비지하기위하야 미성이나마 기우려저-천하의절승인 금강산의 천봉만학을 단풍으로 곱게물드린 추색을 완상하기위하야 금강산탐승단을 모집하기로하엿다 이번에는 일반의편의를 도모키기하야 외금강탐승단과 해내외금강탐승단의 두대로 난호아 모집하올는바 외금강대는 왕복일간 해내외탐승대는 왕복삼일간으로 오는 십월십일오전시삼십분발차로 두대가모다 원산을 떠나기로 하엿스며 탐승비는 외금강대는 약사원오십전가량이며 해내외탐승대는 십삼원오십전가량으로 만고의 절승인 금강산의 경개를 완상케되엿스니 일반은 다수참가하여 주기를바라는바이라한다

音樂實演의밤
鐵山支局後援

【鐵山】오는시월이일에 철산읍내 영신상점주최와 본보철산지국후원으로 당지공회당에서 레코-드 패왕인 포리도-루 전속가수가 래연하야 음악실연의밤을 개최한다는바 본보애독자에게는 특히 할인권을 발행하리라는데 벌서부터 각방에서 손을꼽아 긔대하고잇다한다

興南公普校에서 學年延長運動

【興南】흥남공립보통학교는 개교이래 교장중을 하지아니하면 아니될 큰문제에 봉착하야 후원회에서는 此사적 노력을 한다는것은 이미본보에 보도한바이어니와 이제 또다시 현재사학년제인것을 륙학년으로 학년연장을 하기위하야 필사적으로 운동을 하기로하고 운동위원으로 좌긔사씨를 선정하엿다한다

金鳳翰 金建錫 吉京浩 張之相

地方人事

▲金仁基氏(天光堂藥局)開業人事次本社鎭南浦支局來訪

▲崔季敏氏(慶南道警部補)泗川警察署轉任人事次 本社泗川支局來訪

高普校長會議
公州高普서開催

【公州】전조선공립고등보통학교(高等普通學校)교장협회는 십일월칠일부터 구일까지 삼일간 당지 고등보통학교내에서 개최한다는데 회의사항과 일할은다음과갓다한다

十一月七日 當校授業視察 當校施設視察 右에對한 質疑應答批評

同八日 協議事打合 同上 公州百濟史蹟視察

同九日 協議打合 儒城의忠南道農村青年訓練所視察 又는扶餘의 百濟史蹟視察

新義州府內大火
草家十五戶全燒
損害總額은不過七百餘圓이나
罹災民情景은極慘澹

【新義州】지난 이십칠일밤 열시경 신의주미륵동(彌勒洞一四七番)홍윤길(洪潤吉)(?)집에서불이 일어나 때맛츰 바람이 세이고 부근은 전부 초가집이 엇슴으로 삽시간에 부근으로연소되엿는데 십오호를 전소하야 부근을폐허로 만들고 열한시사십분에야 진화되얏다 이곳은원래 비민들이살고잇든곳으로 손해총액은, 칠백여원에 불과하나집과가장즙물을 전소한 리재민들의 정경은 참혹하얏다 원인은 전긔 홍로인이 술이취하야가지고 자긔집운롤에 불을너타가잘못하여 불이아궁밥 잡자나무로 연소되기 시작하야 그와가티큰 불이 되것이라고한다

工費十萬圓으로 老江鎭漁港竣工
竣工式盛大히擧行

【立石】안주군 립석면 서호리로강진(安州郡立石面西湖里老江鎭)을 어항 수축의목적으로 십만여원공비를드려 작년록월에긔공하엿든바 요즈음에야 준공이되여 지난이십오일 오후두시부터 동어항 현장에서 관민다수 참집하여 성대히 준공식을거행하엿는데 동어항은 서조선에서 요지(要地)로 수륙교통의완성을 아올러 압흐로 동어항의발전은 매우긔대되엿다고한다

武器密輸事件
取締依然進行

【新義州】긔보=무긔밀수사건으로 신의주 헌병대에게 엄중한 취조를 밧고잇든 모국요직에잇는 모씨와 친교를 가진이등(伊藤)모는 지난이십팔일 일단 석방되얏다는데 그사건에 관하야는 아직도 취조를 진행중이라고한다

怪力家韓駿鎬
靈岩來演盛況

【靈岩】조선에처음이고 하나인 괴력가 한준호(韓駿鎬)(?)군 일행이 목포 라주등지에서 실연을마치고 이십사일에 래영하여 조선의 랑지국후원하에 지난이십사 오량일간 읍내남문안 가설극장에서 력기 력예 긔합술(技,力藝,氣合術)등사십종을 실연하엿는데 조선인력사로는 본군래연이 처음인만치 한(韓)군

問題의電線絶斷事件
容疑者四名檢擧
大田署員動員으로

【大田】지난 구월이십이일 이차에 공하야 대전,부산간(大田釜山間)대전에서 약일리가량되는 대전군 외남면 룡방리(大田郡外南面龍坊里)부근에서 어떠자가 다량의 전선(電線)을 절단하야 통신상 대이상을 이르켜 대전우편국과 당지 경찰로하여금 극도의 소동을 식힌사건은 긔보한바이어니와 이번사건을 당당한 대전경찰서에서는 때가 마츰 사단연습으로 특별경계를 하는중이므로 금번사건을 극히 중대시하야 이래 총동원으로 수사망을 버려노코 불면불휴의 활동을 하엿스나 범인을 체포치못하고 갈팡질팡하여오던바 지난 이십칠일 정오에 이르러서는 무슨 단서를 어덧든지 경찰서에는 한사람의 당직을 남겨 노코 고원(高原)서장이하 전서원이 수사본부를 전선절단한 현장부근으로 이동하야 비상한 활동을한바 그부근 산속에서 절단한 전선전부를 발견하엿스므로 그부근동리를 물샐틈업시 수색을 하다가 오후여섯시경에는 룡방리에서 어떤 사람인지 네사람을 경찰서자동차에 실어다노코 밤이 깁도록 엄중한 취조를 하고 잇다 한다

公普增築費로 四十圓을寄托
朝窯從業員特志

【興南】흥남조질회사직공중에 맹유지는 그날그날 생활비에도어려운 박봉중에서 매월얼마식을 거두어 사십원여를 흥중문제로 난관에 봉착한 당지 보교증축비에 보태여쓰라고 가저왓다고하며 이를듯게된 당지일반시민들의 칭찬도 자자하다고한다

問題의紡績工場
畢竟工事着手

【大田】종연방적회사(鐘淵紡績會社)가 대전에 공장을 설치한다함은 긔보한바이어니와 그동

異次頓의死 【2】
李光洙 作
金奎澤 畫

어스름이 되어 방방이 울등잡에 불을켜 노흔때에 이마로아손이 대궐로부터서 집에돌아왓다 그는 매우 불쾌한 모양이엇다。

달님은 아지버가 불쾌한 이유를 알앗다。그것은 오늘 과거에 거칠마로가 장원이 안되고 이차돈이 장원이 된 까닭이엇다。 이마로는 이차돈보다 거칠마로를 더 사랑하여서 이번에 거칠마로가 장원이 되엇을 미뎟고 그리되면 딸달님의 사위를 삼으려하엿든것이 예상대로 안 된 까닭이엇다。이마로의 눈에는 거칠마로야말로 오늘날 신라가 요구하는 인물이라고 생각한것이다。오늘날 신라는 서에는백제、북에는 고구려、동에는 일본、그리고 남에는 금관국과 이웃하야 잇서서 크게 군비를 정돈하야 국위를 떨치지아니하면 아니될 때라고 이마로이손은 잇고 잇다。그런데 거칠마로는 긔골이 장대하고 눈과 목소리가 크고 파연 무장스감이지마는 어차돈은 미목이 청수하우 녀자가티 아름다운 사람이엇다。게다가 이차돈은 무장에게 필요한 억세인 생각이 적고 자비심이 만하서 도저히 천만인의 목숨을 파리죽이듯하는 일은 할수업는것 가탓다。실상 이차돈은 포로와노예들간에 인자한 서방님이라는 이름이 눕흣고 작년에 금관국을 칠때에도 이차돈은 거칠마로에 못지안케 잘 싸와 큰공을 세웟지마는 포로들은 다살려주고말앗다。이것을 이마로는 크게 근심한것이엇다。그런데 딸달님이 이차돈을 사랑하는 눈치를 아는 이마로는 더욱이차돈을 못마당하게 생각한것이엇다。

『아버지。 오늘재 조겨름에 누가 장원이 되엇서요?』

하고 달님은 모르는체하고 이마로에게 물엇다。

『재조겨름이란 한번 보고 아는게아니다』

하고 이마로는 불쾌한드시 대답하엿다。

『그래도』

하고 달님은 아버지의 대답을 졸라댓다。

『장원은 아니지마는 거칠아비가 고작이지。』

거칠마로는 거칠아비라고도 부르는것이엇다。

『그럼 거칠마로서방님이 장원이신가요?』

『장원은 이차돈이지마는 거칠마로가 낫다는말이다!』

하고 이마로는 맛나는 눈으로 딸을 보앗다。

『활은 누가 잘 쏘아요?』

하고 달님이 못는다。

『버들님 꿰는 내기에 거칠마비는 열번에 열번、이차돈은 열번에 열、그래도 거칠아비 솜이 힘이잇서。』

『칼쓰기는?』

하고 달님은 거칠마로가 이차돈에게 연방 휘둘려돌아가던양을 생각하고 속에 우수운것을 참으며 아버지의 말하는 모양을 보라고 하엿다。

『글세 그것을 한번만 보고는 모른단말이다』

하고 이마로는 그 때에 거칠마로가 처음에는 단바에 이차돈을 지울뭇하든것이 차차 어차돈에게 눌려서 개신을 못하든것을 생각하고 불쾌하엿다。

달님은 아버지가 대답하기를 괴로워한것이 유쾌하엿다。

겻테서、이마로아손의 부인이 듯고 안젓다가、

『그러면 언약하신대로 달님의 소원을 일우어주시지오。이번에 장원하는 사람으로 사위를 삼으시마고 하섯스니』

하고 딸의 편을 들엇다。

『그것은 안 될걸』

하고 이마로는 눈을 크게 떳다。

이 말에 달님의 얼굴은 파라케 질린다。

『어찌하야 안 됩니까、자식에게 하신 언약을?』

하고 부인은 엄숙한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앗다。

『상감께서 말슴아 이번에 장원한 사람으로 평양공주(平壤公主)님의 부마를 삼으서서 태자를 봉하신다던걸』

하고 이마로는 한숨을 쉰다。

이마로의 두 귀 밋레 센 터럭이 번적거린다。

왕은 아들이 업고 오직 평양공주라는 딸 하나가 잇섯다。딸을 평양공주라고 이름을 지은 까닭은 고구려를 처서 평양을 신라땅을 만들라는 생각이엿다。

이마로의 이 말에 달님의 속우린 얼굴에서는 눈물이 떨어저서 낭치마 자락을 적셧다。

づつう・めまひ —を去り— 頭(あたま)をはつきりさす

神經衰弱 疲勞恢復 ヒステリー 二日醉・齒痛

非凡한 하레야가의特色

하레야가는從來에副作用이만튼單一頭痛劑와는틀려서、胃腸을튼튼하게하는 獨特한機能을가지고잇스며稀貴한 燐合成劑로서 代表的性能을가지고 頭痛、眩氣症은 勿論、連服하면 疲勞를낫게하며 頭腦의調和를好轉식힌다。

【主效】頭痛、偏頭痛、宿醉、히스테리、不眠症、神經衰弱、睡眠不足、疲勞恢復、過度한執務勉學에依한頭痛、胃腸에基因되는頭痛

【藥價】三十錢・五十錢 一圓・二圓 (粉末錠劑共)

販賣元 東京銀座西一ノ五 日獨醫化學研究所 振替東京三〇〇四三

胃腸을强하게하는 頭의榮養劑

はれやか 하레야가

"朝鮮財政及金融"

廿五年間變遷回顧

●……林財務局長 談

始政二十五週年의 紀念日에 잇서서 그동안 朝鮮의 財政經濟는 如何한 變遷을 지내온 바에 對한 回顧를 林財務局長은 談話의 形式으로 다음과 가티 發表하엿다

舊韓國時代의 財政은 宮中府中의 區分이 明瞭치안코 王室의 經濟와 國家의 財政이 混淆한 狀態이엇스나 其後 漸次 王家의 事務와 國政을 分離하게되고 도 豫算制度의 採用을 보게되엿스나 永年의 弊는 容易히 곳처지지안코 豫算은 畢竟 一片의 形式에 그치는 狀態에 잇섯다 明治三十七年에 至하야 韓國政府의 財政顧問으로 目賀田男爵이 招聘되어 從來의 惡習을 變除코저 처음으로 歲入의 狀況을 正確히 調査하야 明治三十八年度의 豫算을 編成하얏는데 其歲入總額은 七百四十八萬餘圓이오 歲出總額은 九百五十五萬餘圓으로 二百餘萬圓의 歲入

不足

을 計上하지안흘수 업게되엇다 其後도 年年히 歲入不足을 告하엿스나 明治四十二年에 至하야 비로소 歲入出의 均衡을 어더 豫算은 其體裁를 漸漸히 整備하게 되엇다

明治四十三年八月 日韓合併의 結果 [illegible] 十月一日 朝鮮總督府 特別會計의 設置까지는 歲計에 關하야서는 舊韓國及 統監府 모다 從來의 豫算을 그대로 踏襲施行하고 十月에 至하야 비로소 統一된 豫算을 編成하얏는바 明治四十三年度의 歲計는 年度中途에 어든것과 新規計畫을 樹立할 틈이 업섯든것等으로 豫算上에 잇서서 施政의

全貌

를 窺知하기는 困難하고 明治四十四年度豫算에 至하야 비로소 朝鮮總督府 特別會計로서의 施設經營의 全體를 窺知할수잇게되엇다 明治四十四年度豫算은 四十三年度[illegible] 業費, 朝鮮事業及 一般會計[illegible] 事業의 收支를 綜合하야 처음으로 施政의 方針을 加味하야 編成된것으로 其總額은 歲入歲出 모다 四千八百七十四萬餘圓이엇는데 朝鮮總督府特別會計의 自己의 收入으로서는 經費의 全部를 充當할수업기때문에 從來 日本政府가 支出하여온 額을 目標로 千二百三十五萬圓의 補充金을

計上

하야써 歲入出의 均衡을 圖하얏다 그리고 此補充金은 大正二年度 實行豫算에 잇서서 二百三十五萬圓을 減額하고 殘餘千萬圓에 對하야서는 大正三年度부터 五年間에 漸次減額하야 大正八年度에 至하야 이를 全廢하고 特別會計의 財政을 自營케할 計畫下에 緊縮하야 稅制의 整備, 歲出의 節約繰延에 努力하야 新規歲入의 增加를 圖하는同時에 一面 節約할수잇는 經費는 이를抑止하고 또 產業의 進展에 必要한 施設費는 相當히 이를計上하면서 豫定과가티 補充金을

全滅

할수잇섯슬뿐더러 併合當初에 잇서서는 經常歲入으로 經常歲出을 支辨할수업는 財政으로서는 不健全한 狀態에 잇든것을 大正三年度에 [illegible] 經常歲入으로 [illegible] 支辨할수잇게되엇다 그런데 大正八年三月事件突發로 總督府의 施政에 大改革을 斷行하야 所謂 文化政治가 實現되게되어 이에는 多額의 經費가 必要함으로 大正六、七年度의 財界의 好況으로 殘存한 巨額의 剩餘金을 繰入하여도 財源에 不足이 [illegible]

充當

할수업게되어 다시 補充金을 要求치안흘수 업는 事情에 이르러 大正九年度千萬圓、同十年度千五百萬圓을 計上하고 其後 [illegible] 一般經費의 補充金으로 千五百萬圓을 受하야 왓스나 昭和七年度부터 二百五十萬圓을 減하야 今日에 이른것이다 도리켜 歲計의 狀勢를 보건대 明治四十四年度 豫算五千萬圓이든 朝鮮特別會計의 豫算額은 昭和十年에 至하야 거이 三億圓에 達하게되어 約六倍로 其計數의 膨脹은 隔世의 感이잇게되엇다

이제 二十五年間의 歲計의 變遷을 回顧하면 其間 鐵道의 經營을 一時 滿鐵에 委託하며 或은 特別會計의 設置改廢、行政財政의 整理等 幾多의 起伏波瀾이 잇섯스나 大體 膨脹의 一路를 것고잇는 狀態로 다음에 示하는 五年마다의 豫算額에 依하야 大略 窺知할수잇다

年度	歲入出	補充金
明治四十四年度	[illegible]	[illegible]
大正四年度	[illegible]	[illegible]
同 九年度	[illegible]	[illegible]
同 十四年度	[illegible]	[illegible]
昭和五年度	[illegible]	[illegible]
同 十年度	[illegible]	[illegible]

그리고 此二十五年間에 繰入된 補充金의 合計는 三億二百三十四萬圓으로 鐵道建設改良費, 各種土木事業費等 [illegible] 私設鐵道買收費等 公債支辨事業에 對한 公債 及 公債外 朝鮮貯蓄債券 及 旱害救濟施設에 要한 借入金等을 合한 公債及借入金의 額面總計는 昭和十年度末에 五億二千六百二十餘萬圓으로될 豫想으로 이 元利償還等에 要하는 金額은 二千七百餘萬圓으로 歲計의 約一割에 相當한다

回顧

하야보면 寺內總督 長谷川總督時代는 朝鮮財政의 基礎를 確立하는 同時에 自立計劃實行의 時代로 増稅及新稅의 創設 其他 各般의 施設은 大槪 이를 目標로 計畫되엇는데 一面 朝鮮開發의 基礎가될 鐵道의 施設改良, 港灣의 修築, 道路改修의 事業은 相當히 大規模로 着手되엇다 또 朝鮮殖產銀行[illegible]의 新設도 計畫되고 產業方面으로서는 金融組合聯合會의 設置 [illegible] 緬羊及 蠶桑의 奬勵等도 實行되엇다 [illegible] 朝鮮經濟의 綜合을 圖하는 第一步로 朝鮮國有鐵道를 南滿洲鐵道株式會社의 經營에

委託

되엇것도 此時代의 일이다 다음에 [illegible] 時代에는 文化政治의 [illegible] 根本的으로 各般의 施設에 [illegible] 同時에 產業開發을 爲하야 各種의 計畫을 實行하얏는데 財政方面으로보아 特히 重要한 施設로서는 警察制度의 大改正, 普通及高等普通敎育의 大擴充, 專門敎育의 創設, 道路, 港灣, 治川, 治水等의 各種土木工事, 關稅制度의 改正, 煙草專賣創業, 國有鐵道直營復舊의 實及, 產米增殖計畫의 遂行等을 列擧할수 잇슬것이다 (繼續)

湖南旱魃地代作 全體成績不良確實

局部的生育良好不無이나 乾燥, 晩時播種으로

今年 全南北의 旱魃로 因하야 畓에 벼를 심으지못하고 代作을 한地域의 代作成績은 다음과 가티고한다

▲全北 被害面積 四千八百町步中 代作地 二千八百十二町步 (其中 蕎麥 二千三百九十五町步)로 七月中旬에 播種한것은 成育이 良好하야 段當六斗가량의 收穫이 잇슬모양이며 大部分은 七月下旬에 播種하엿는데 너무 乾燥한때문으로 發芽及 成育이 不良하야 겨우 段當 三斗內外의 收穫밧게는엇슬모양이다.

▲全南 七月下旬부터八月上旬에 亘하야 播種한것은 大體成育이良好한데 羅州, 靈光二郡은 特히 良好하야 段當七斗豫想이며 咸平 務安二郡의 濕畓은 排水가 不良하야 段當三、四斗의 收穫이 잇슬모양이다

朝鮮米殘量賣却

卅日農林省京城出場所에서發表 玄米正租合卅萬石

農林省 京城米穀事務所 發表에 依하면 朝鮮米 賣却豫定表는다음과갓다

▲玄米(八年產米)

受渡場所	數量
群山	一二五、〇〇〇叺
木浦	四六、四五〇
仁川	五三、三九〇
鎭南浦	一〇〇、七七五
合計	二七二、二二五

▲正租(八年產米) (一〇八、八九〇石)
仁川 一、二九五、九〇一叺 (三八、六四四石)

▲見本鑑色及保證金受付 十月四日
▲申込受付 十月五日
▲賣却決定 十月七日
▲受渡期限 十月二十一日

下旬貿易 出超增加

四千五百萬圓

【東京電話】大藏省發表에 依하면 九月下旬對外貿易 槪算은 다음과갓다(單位千圓)

輸出	八一、二五七
輸入	三五、五三七
合計	一一六、七九四
出超	四五、七二〇
一月以來出超累計	四八、六四一

京城商議選擧 有權者數

總數二千五百

京城商工會議所의 九月十二日現在 有權者數는 如左히 決定되엇다

一級 法人 一七〇 個人 八七 }二五七
二級 法人 三四二 個人 二九二四 }三二六六

이것을 前回인 昭和七年에 比較하면 總數에잇서 五百三十五名增加인데 一級으로부터 出馬할 議員은 平均十七票 二級으로부터 出馬할 議員은 平均百五十票를獲得하야 되리라한다

▲總選擧要領=京城商議員改選에 對한 總選擧의 告示는 九月三十日附로서 發表하얏는데 其要項은 如左하다

一、選擧場 京城公會堂
一、投票日時 十月一日 一級午前九時 午後二時 二級은午後二時半 午後四時
一、開票日時 十一時 一日午後五時
一、選擧할議員數 一級十五人 二級十五人

中國政府는 輸入稅引上?

◇……十月一日로부터

【上海三十日發電通】財政部消息에 依하면 中國側의 傳하는바에依하면 國民政府는 延期中이든 輸入稅引上을 十月一日부터 實施할모양으로 이미 海關準備手續을 完了하엿는데 輸入稅引上은 七月一日로부터 全般的으로 一割乃至一割五分引上에 實施하려든바 日本의反對로 無期延期가되엇든 것이라한다

伊國大規模借換

◇……國債十三億리라

【미라노二十九日發電通】過般의 伊太利閣議決定에 基하야 三分半利付國債十三億리라는 二十九日五分利付國債로 借換하엿는데 이것은 東阿遠征費支辨에 充當하는것으로 未曾有의 大規模借換이라고한다

▲殖銀異動 (二十八日附) ▲命鎭水支店長(鐵原支局長)井田德次郎 ▲命鐵原支店長(安州支店長) 古後龍雄 ▲命安州支店長代理(木浦支店) 西澤正則

經濟界消息

◎朝鮮火災十三日移轉=朝鮮火災保險會社에서는 曩者 新築中의 太平通新社屋이 落成되엇슴으로 十三日 移轉키로 決定하엿다고

商況 (三十日)

株式 出超好感 上放

前場昻進

休日을지난 今前場은 『에』國總動員令說로 買氣를促하야 東新 百六十圓五十錢 大新九十八圓二十錢 日產八十三圓丁 朝新三十一圓十錢에올랏스나 利喰賣의 警戒로 伸惱하야 結局 再割引보다 東新 一圓五十錢高인 百五十九圓四十錢 大新 九十七圓六十錢 [illegible] 九十錢高인 九十七圓六十錢 [illegible]

後場[illegible]

後場은 下旬貿易 四千五百餘萬圓의 大出超好感이 加하야 買氣勃興하야 前引에比하야 東新二圓十錢高인 百六十一圓五十錢、日產一圓二十錢高인 八十三圓五十錢、大新一圓三十錢高인 九十八圓九十錢、鐘新五十錢高인 百二十九圓丁、朝新五十錢高인 三十一圓四十錢、拓新十二圓丁에各大引되고 朝取六十四圓七十錢이엇다

東新다시上進

『에』國總動員令을 傳하야 今前場은 東新百六十圓 大關門 再調이엇는데 一方 伊太利의 重大閣議의 『콤뮤니케』에 依하면 伊『에』紛爭을 歐洲에 延長치안코 聯盟도 脫退치안켓다 하면서 『에』國征討를 實行하리라하니 어찌되는셈인지? 伊太利 마음대로 聯盟과는 틀리지안코 『에』國만 부서때리자는것이 그대로 될것인지? 形勢는 依然 險惡하면서도 업는 開戰지도 안하서 買氣는 潛在하나 再熱은 안되는모양이다● 그리하야 伊『에』紛爭에 限하야 短期一戰이라면 큰 好感이 업겟지만 大局的으로 본다면 伊『에』紛爭이 平和裏에 解決된다드래도 今後 世界軍擴競爭이 激化될것이 豫想되며 英國이 軍縮의 感을 깨닷고 大建艦計畫을 한다하야 軍需株方面은 依然好望이 期待되며 東新가튼것도 戰爭이 업스면 或은 戰爭買의 反動이 相當할지모르나 政局에 別變動이 업는限 生絲高等 商品願氣恢復, 貿易好調와 아울러 大勢買에는 틀림이 업다는 强氣論이잇다

整理論도不無

東新이나 大新이 十一日에 上放以來 株式市場은 全體的으로 買氣가 沸騰되엇고 그後 反落되엇지만 依然 低價에는 買氣가 만흔모양인데 지금까지의 經過를 보면 雜株는 上下波瀾을 거듭하기만하얏지 거의 올느지아니하고 東新과 大新만 高價를 維持코잇는데 花形株라할지 投機株라할지 그런것은 買人氣高調에 伴하야 實株가 大部分 遺流하얏스나 二、三流株는 問題視할것이 업고 九月以來 株價가 相當하다한다 如斯한 市況의 經過로보아 株式은 整理를 要할 時代인듯하다는말도 잇다

東新再去勢論

東新이 百六十四圓六十錢에까지 올랏던것은 伊『에』紛爭을 契機로한 軍擴時代의 警示라 볼수 잇스나 極端的悲觀에 對한 어떤 程度의 修正을 求할時代를만들기 爲한 昻騰이엇다 볼수잇다 東新昻騰의 理由를 그러케 본다면 根本이 修正이오 期待가 理想이엇스니 上市勢의 程度도 中旬의 熱狂으로서 봉수잇스며 되엇것이라 봉수잇스며 東新의役割은 끗난것이아닐까?

昨年末地稅面積

四百五十四萬町步

前年보다 面積增이나 稅額減

總額額千五百萬圓

昨年末現在 地稅調査에 依하면 面積四百五十四萬五千五百八十八町步 地價 九億三千六百九十三萬八百八十四圓 稅額 千四百九十九萬五千四百八十二圓 地番數 千九百七十六萬四千四百十筆으로 前年末에 比하야 面積 九千七百四十町步, 地番數 八萬七千五百四十一筆의 增加를 示하엿스나 地價 九十五萬三千二百四十九圓 稅額 [illegible]의 減少이다 그

原因

을 들면 面積에잇서서 荒地 一萬三千町步 非課稅地 五千七百町步 國有地 九百町步 公用公共用地 三百町步 開墾地 又는 埋築地免除 二百町步等의 減少를 보앗스나 荒地免除期間滿了 [illegible] 課稅地 七千八百町步 公用公共用地 使用廢止 四百町步 開墾地又는 埋築地免除期間滿了 二百町步等의 增加를 보엇과 또

地番

數에잇서는 非課稅地 荒地 國有地等에잇서 減少를 보앗스나 他方 分割, 課稅地 荒地免除期間滿了 等에依하야 增加를 본때문이다 그리고 地價의 減少는 荒地免除期間滿了 百七十八萬八千圓 課稅地 百十萬五千圓 地目變換 百二萬四千圓 公用公共用地使用廢止 八萬八千圓 開墾地又는 埋築地免除期間滿了 六萬九千圓等의 增加가 잇섯스나 荒地 [illegible] 非課稅地 [illegible] 國有地 二十萬三千圓 公用公共地 十七萬九千圓等의 減少를보앗고 前記以外에 稅率의 低減을 본때문이라고한다 또

地目

別로보면 田 二百七十四萬九千町步(總面積의 六割四分)로 最高로 그다음은 畓 百六十二萬七千町步 (總面積의 三割五分八厘)인데 그合計는 總面積의 九割六分二厘가되며 其他는 垈十三萬六千七百町步 雜種地三萬千百町步等 이다 地價에 잇서서는 畓이六億四百十四萬千圓(總地價의 六割四分四厘) 田이 二億四千九百四十萬四千圓 (總地價의 二割六分六厘)垈가 八千百七十萬圓 雜種地가 百五十四萬七千圓等이라고한다

白米市勢低落

正米一圓暴落

殘量賣却、新米出廻로

二十八日發表 朝鮮米第一回豫想이 豊作으로 休日中正米市勢는 弱하더니 三十日에入하야는 朝鮮米殘額賣却發表와 新米出廻에 壓迫되어 京仁兩地의正米는 期米高에不拘코 丸仁三等三十圓八十錢으로 一圓의暴落이오 鎭南浦의丸ナ龜尾도 三等三十圓丁으로五十錢暴落이엇스며 京城一等白米百키로 二十二圓八十錢으로 二十錢低이엇다

米穀處理委員會

卅日午前開催

【東京電話】第三回[illegible] 委員會는 三十日 午前十時農相官邸에서 열고 對馬東京米穀事務所長으로부터 最近米穀 新規利用에關한 試驗硏究의 經過를 報告한뒤 乳酸그리세링 釀出 淸酒等의 新規利用 試驗硏究等 官民各機關에 委託하야 行하게 하기로 決定하고 正午에 散會하엿다고한다

採鹽量一億瓩

九月廿日現在

專賣局九月二十日現在 採鹽高는 合計二億五千七百十萬二千瓩으로 豫想高에對한 比例는 十三割九分四厘의好成績인데 이것을 各所別로보면 朱安一億一千三百[illegible]六萬二千瓩 廣梁灣一萬一千七百五十萬六千瓩 南市二千九百二十四萬四千瓩이엇다고

今日財界 (十三日)

◆米 (單位錢) [illegible]
◆綿 (單位圓) [illegible]

市場人氣

株

聯盟과 絶緣지는안코 『에』國만 征討하자는 것이 伊太利의 閣議結果▲一方『에』國은 總動員을 하얏다하야 今前場은 東新百六十圓臺로上進을 비롯하야 一齊高▲이러케되니 强氣는 또 신이나서 大言壯談하되 『一구나 期待지안든 東新三十圓高가 나왓던 큰 根底가 잇는株이니 어떤動機로 意外의 市勢를 演할지 모르며 十月中에 반드시大爆發이 잇스리라』보는 一面▲弱氣는말하되 『큰 市勢를 꿈꾸고서 高價에飛付買한者는 結局은 投出코야 말것으로 取組膨脹이 訂正되리라』고 보고잇서 그觀測의 主辭은 依然 外電如何에 두고서 强弱關이 區區인바 果如何▲伊『에』開戰 切迫과 共히 市勢도 興味百%

米

朝鮮米作의 第一回豫想은 一千七百八十餘萬石으로 되어잇스나 日本內地米作의 第一回豫想은 意外減收되기가 十中八九▲朝鮮米作으로는 樂觀이라할수잇스나 日本內地는 悲觀인 모양이니 朝鮮의樂觀이 日本內地의 悲觀을 緩和하지는 못할듯▲日本內地의 供給不足을 告하게되는때는 朝鮮米의移入으로써 充當하게되니 結局 朝鮮의米價도 前途昻騰을 可期▲그뿐만아니라 朝鮮農家 又는 持米側의 實惜方針은 又一層鞏固하게될모양이니 何如間 不遠한 將來에 白米一升四十錢으로 昻騰할것은 明若睹火▲明一日 新甫 十二限은 上鞘或은 同鞘 또는 下鞘說까지 잇서 그觀測이 區區不一▲阪地市場으로서 二、三十丁下鞘로 發表될豫想의 情報가 入하엿다 阪地가 下鞘일때는 當地 亦 下鞘일것을 可期▲그러나 昨年同期의 十九丁上鞘로 下鞘로 볼수도 업는걸▲下鞘이거나 上鞘이거나 米界前途의 去益 高價일것만은 事實

期米 突高裡에 納會

前場爆發

再昨後場 阪地三十一圓〇九錢止와共히 二十八圓七十錢에 場을止하엿든當市場은 一休 今朝에入하야 阪地初付三十一圓三十錢인 二十一丁突高를 擔하고 二十九圓下인 十三丁高로 場을始한後 阪地七節二十五錢까지 小落하엿다가 九節四十七錢 突高로 結局三十九錢에 止의 場合을 伴하야 二十四錢의 最高價로 頑强히 納會되엿다

新甫發會豫想

同鞘或은下鞘說

明一日 發表될 新甫十二月限은 一般이 推測하는바에依하면 [illegible] 의 事情으로는 當然히 二、三十丁의 下鞘로 發會할수잇스나 그러나 昨年同期에는 當地十九丁의 上鞘로 發會되엿스며 一般의 上鞘로 發會되엿스며 [illegible]

堂島前場反撥

【大阪電話】各地의 微雨와東北水害의報로 一氣高放寄付이엇다

朝取期米取組內容

◆買方 ◆賣方 [illegible]

後場休會

後場은 [illegible]로休會이엇다

買一貫이得意

反落後必反撥

本月中 當地市勢는 二圓四十丁의 大反撥을 示한後 約百丁의 反落을 告하엿스나 [illegible]

東京國債市場

【東京電話】朝鮮材料 皆無이오 金融情勢의 [illegible] 買方의 [illegible] 月末이라고 國債佛貨共히 五錢乃至十錢低이오 米貨共는 爲替로 一圓五十錢低落이엇다

甲五分利 一〇四五
佛貨四分利 八六三〇

大阪四市場例休

大阪綿絲 棉花 人絹 砂糖의 四市場은 營限受渡로 今日例休

趙俊鎬米豆取引店
仁川海岸町三ノ七
電話長 九一六 六九三 一一六五

各地新甫豫想

十月一日에發會될 十二月限新甫는 各地共히모다 下鞘豫想이다 ▲東京三十丁▲大阪、仁川、神戶、下關、群山、木浦、釜山、大邱各三、四十丁

仁川在米增加

【仁川】本月二十六日現在仁川在存米는 前週에 比하야 合格米는 [illegible]의 增加를示하엿는데 在米는 左記와如하다 ▲玄米(政)一九六、四九九叺(民)四五、五六一叺 ▲正租叺(政)八六、九三二叺(民)二〇、二七一叺 俵入(政)一八、五九二俵(民)一、六七五俵 ▲大豆三、四〇〇叺 ▲小豆九七叺▲大麥一〇〇叺(白)一、〇五二叺(裸)三四五叺▲小麥一四、三四六叺▲粟一、三六六俵▲黍一、一三三叺▲蕎麥一、〇一五叺 ▲糯米(日本內地品)六五九八袋 ▲蒸籠米四五九俵

各地正米

木浦底付

定期上放을 보고도 依然賣方이 傍觀하야 市況은 無付的으로 保合인 丸木多摩三等三十一圓九十錢 四等三十一圓七十錢 雄町三等三十二圓四十錢 四等三十二圓二十錢 一等白米十二圓八十錢

南浦暴落

實行賣가 依然强하야 不渡이엿는데다가 朝鮮米殘額賣却發表로 氣配는 一氣로 五十錢暴落 丸龜尾三等三十圓丁 四等三十九圓八十錢 一等白米十二圓八十錢

京城慘落

朝鮮米殘額賣却 發表와 新米出廻로 賣氣는 殺到되어 氣配一圓暴落인 丸仁三等三十圓八十錢 四等三十圓六十錢 一等白米十二圓八十錢

仁川急落

新米의賣物漸增과 渡米決算으로 市勢는 一氣로 一圓急落이나 取引은 依然不振하야 丸仁三等三十圓八十錢 四等三十圓六十錢 一等白米十二圓八十五錢

釜山引締

定期手當買等期待하고 賣物을 出치안코 淸算의 急反撥을 보고 氣配更히 二十錢引締하야 朝米四〇九叺의 取引이 잇섯다 角ワ三等三十二圓十錢

大邱同調

拂下 不成績으로 正米品薄이 緩和되지안코 强調이나마 買方이 新穀待로 傍觀하야 場面은 閑散裡에保合인 角ワ三等三十一圓丁 四等三十圓七十錢 一等白米十三圓六十八錢

群山硬化

大演習關係로 貨物輸送에 依하야 產地賣物皆無이며 期米의 暴騰을 보고 氣配二十錢硬化인 ◎三等三十圓五十錢 四等三十圓二十錢 一等白米十四圓五十錢

金.銀.白金
京城德力
京城府明治町
電話本局3939 振替京城334
地方注文代金引換取次 送料先金

金銀入賣
奬
京城府貫鐵洞一二四
奬金號
電光一五九九

金融 (三十日)

◆海外經濟◆ [illegible]
◆日本銀行券◆ [illegible]
◆朝鮮銀行券◆ [illegible]
◆京城手形交換高◆ [illegible]
◆東京金利◆ [illegible]
◆大阪金利◆ [illegible]
◆對外爲替◆ [illegible]
◆金貫入價◆ [illegible]

米穀 (三十日)

◆京城正米◆ [illegible]
◆仁川正米◆ [illegible]
◆大阪正米標準價◆ [illegible]
◆京城雜穀◆ [illegible]
◆仁川大豆◆ [illegible]

商品 (三十日)

◆京城綿糸布市勢◆ [illegible]
◆京城絹布◆ [illegible]
◆日本麥粉市勢◆ [illegible]
◆시카고期米◆ [illegible]
◆綿油沖價◆ [illegible]
◆滿洲商況◆ [illegible]
◆大連特產市勢◆ [illegible]
◆綿粕沖價◆ [illegible]

株式 (三十日)

◆朝取短期◆ [illegible]
◆賣定代引日步◆ [illegible]
◆朝取短期賣買高◆ [illegible]
◆東京現株◆ [illegible]
◆東京短期◆ [illegible]
◆東京短期取組◆ [illegible]
◆大阪短期◆ [illegible]
◆大阪短期賣買◆ [illegible]
◆大阪短期氣配◆ [illegible]
◆大阪長期◆ [illegible]

期米 (三十日)

◆朝取期米◆ [illegible]
◆朝取期米賣買高◆ [illegible]
◆朝鮮內各地期米◆ [illegible]
◆大阪期米◆ [illegible]
◆大阪期米取組◆ [illegible]
◆大阪市中在米高◆ [illegible]
◆東京期米◆ [illegible]
◆日本各地期米◆ [illegible]

生糸 (三十日)

◆橫濱生糸◆ [illegible]
◆海外砂糖◆ [illegible]